

성인용 연속 성경공부

갈라디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에베소서: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반응

<인도자 지침서>

지은이 : 죄 블레어(Joe Blair)

데비 키솔(Debbie Chisolm)

리즈 레플린(Liz Laughlin)

マイ클 간프레이(Michael Godfrey)

Ebbie Smith(Ebbie Smith)

Baptist Way Press®

달라스, 텍사스

인도자 지침서, 갈라디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애베소서: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반응
판권소유 © : 2001 BAPTISTWAY PRESS ®
모든 권리 소유.

교회사역을 위해 필요한 만큼 교회에서 복제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출판물의 복제판은 간략한 인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면을 통한 허용 없이 매매되거나 유통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BAPTISTWAY, Baptist General Convention of Texas, 333 North Washington, Dallas, TX 75246-179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BAPTISTWAY PRESS ®는 미 특허. 상표국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모든 성경 인용은 개혁한글 성경
, 1967 에서 했습니다.

초판 : 2001년 9월

BAPTISTWAY 운영위원회

주총회(BGCT) 행정책임자 : 찰스 웨이드(Charles Wade)
교회 건강과 성장 고문 : H. 린 에크버거(H. Lynn Eckeberger)
주일학교 / 제자훈련 책임자 : 베나드 스푸너(Bernard M. Spooner)

출판고문 : 로스 웨스트(Ross West), 다국적 언어 사역부

한국어 집필위원회

단원 1-3, 인도자 지침서 번역
최승오 - 새누리 침례교회, 달拉斯
단원 4, 인도자 지침서 번역
김대형 - 빛과 소금의 교회, 포트워쓰
단원 1-6, 인도자 지침서 편집
조낙현 - 새누리침례교회, 달лас
한국어 집필 고문위원
로이스 로즈(Royce Rose), 신학교육 코디네이터, 텍사스 주총회

패티 레인(Patty Lane), 다국적 새 사역 상담위원, 텍사스 주총회
넬다 P. 윌리암스(Nelda P. Williams), 텍사스 주총회 코디네이터 고문, 성경공부/ 제자사역부 상담위원

♣ 이 교재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교사 혹은 학생일 경우

1. 주중에 일찍 준비하라.
2. 공부할 내용을 개괄적으로 훑어 보라, 목차와 개요를 읽고, 공부할 각 단원의 들어가기를 읽도록 하라.
각과가 어떻게 그 단원과 연관되어 있는지 이해하며 각과를 끝까지 공부하도록 하라.
3. 각과에 해당되는 성경구절을 깊이 읽고 묵상하도록 하라.(각 단원은 저자가 좋아하는 성경 번역본을 사용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번역본을 사용하여 비교해보는 것도 좋다)
4. 성경구절을 모두 읽고 난 후, 저자의 해석을 읽도록 하라. 그 해석은 여러분의 성경공부를 돋는데 목적이 있다.
5. 각과의 보충설명들을 읽도록 하라. 그 내용에 대해 보충설명을 해주며 많은 교훈을 줄 것이고, 묵상하는데 적용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6. 각과의 질문들을 스스로 답해보도록 노력하라. 좀더 깊은 생각과 적용을 하게 하며 성경공부 자체에 도움을 줄 것이다.

☞만약 여러분이 교사일 경우

1. 위에 언급된 사항들을 실천해야 한다.
2. 첫 시간에는 각과마다의 학과일정을 언급하며 간단히 개요만을 설명한다. 4페이지에 있는 목차와 각과마다의 첫 페이지에 학과일정을 적게 한다.
3. 여러분은 *Baptist Standard*나 인터넷에 제공된 많은 성경공부를 위한 도구들의 정보를 얻기 원할 것이다. *Baptist Standard*를 구독하기 원하면 전화 214-630-4571로 연락하고, 인터넷 정보에 들어가는 방법을 알기 원하면 baptistway@bgct.org로 이메일을 보내면 된다.(다른 참석자들도 이러한 정보들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4. 각과마다 지침서 역할을 하는 *인도자 지침서*를 구입하라(한국어는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세요). 교사용 교재 자료들은 분반공부에 실제적이면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원리들을 제공한다.
5. 성경구절, 본문, 그리고 다른 자료들을 살펴보고, *인도자 지침서*에 있는 다른 자료들을 이용해 각과를 공부함으로 성경공부를 위한 계획들을 철저히 세우도록 하라.
6. 성경구절의 의미를 깨닫고 그들의 삶 가운데 그 구절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 주라.

갈라디아서 / 에베소서

이 교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갈라디아서 소개

단원 1: 믿음의 길을 선포하기

과 수업일

제 1 과 _____

다른 복음은 없다

(갈라디아서 1:6-24)

말한 대로 행하라

(갈라디아서 2:1-6, 11-21)

믿음 -- 유일한 길

(갈라디아서 3:1-18)

적합한 시기에

(갈라디아서 3:19-4:11)

제 2 과 _____

제 3 과 _____

제 4 과 _____

단원 2: 믿음대로 살기

제 5 과 _____

그리스도인의 자유

(갈라디아서 5:1-6, 13:26)

건강한 교회로 가는 길

제 6 과 _____

(갈라디아서 6:1-14)

단원 3: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의도

제 7 과 _____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 분인가

(에베소서 1:1-14)

구원받고 새 생명이 되다!

(에베소서 2:1-16)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제 8 과 _____

제 9 과 _____

(에베소서 3:14-21)

단원 4: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제 10 과 _____

교회 안에서 당신의 사역을 찾는 방법

(에베소서 4:1-16)

그리스도인이 윤행일치의 삶을 사는 방법

(에베소서 4:17-5:11)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에베소서 5:21-6:4)

어려울 때 그리스도인이 되는 법

(에베소서 6:10-24)

제 11 과 _____

제 12 과 _____

제 13 과 _____

제 1 과

다른 복음은 없다

핵심본문

갈라디아서 1:6-24

배경

갈라디아서 1장

주제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은 그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우리의 온전한 성실함을 받을 만 하다.

탐구 질문

복음은 유일한 것인가?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교육 목표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왜 우리의 온전한 성실을 받을 만한지 설명할 수 있다.

성경주해

배경 이해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인 자유의 마그나 칼타"라고 불린다. 그것은 기독교 자유에 대한 중요하면서도 핵심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바울은 남부 갈라디아로 알려진 지역의 교회들에게 갈라디아서를 썼다. 이 지역에 있던 교회들은 비시디아의 안디옥, 루스드라, 더베, 그리고 이고니온이다.

이 서신은 두 개의 다른, 하지만 서로 연관이 있는 문제들에 대해 대답한 것이었다. 첫째로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유대의 율법도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던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했다. 바울은 소위 "다른 복음" (1:6)이라고 호칭한 이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잡아주어야만 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를 파괴시킬 것이었기 때문이다.

둘째로, 그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문제 삼았다(1:6-24). 그들은 바울이 사도들 중에서 가장 나중된 자이기 때문에, 본래의 사도들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바울은 그의 사도권도, 그가 전한 복음도 인간으로부터 배우거나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본문해석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 하나님 은혜의 결과, 죄인된 인간을 위한 유일한 희망,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온전케 하는 지침서이다.

죄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 (1:3-5)

1:3. 바울은 그의 독자들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화"를 얻도록 기도했다. 은혜는 (1) 기쁨을 가져다주고 또한 발생시키며 (2)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은혜는 그럴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객관적으로 죄를 완전히 씻어주는 용서에 대해서 말해준다. 평화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주관적인 깨달음 - 안식, 형통, 만족, 그리고 행복 -을 말한다.

1:4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언급함으로써 그리스도의 구속적인 사역을 말하면서 서신의 인사말을 계속 이어 나갔다. "드리셨으니"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자발적으로 희생하셨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건지셨다"는 이 서신의 핵심적인 단어이다. 이 단어는 위험으로부터 뽑아내다, 구해내다, 혹은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다 와 같은 뜻이 복합된 단어이다. 그리스도는 악이 성행하고 관영된 이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 이 "세대"는 1세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시대와 상반되는 현존하는 세상의 구조를 일컫는다.

하나님 사랑의 유일한 계시 (1:6-12)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 사랑의 유일한 계시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성실을 요구한다.

1:6. "속히"는 거듭난 후 너무도 빨리, 그가 방문한 후 너무도 빨리, 혹은 그 거짓 교사가 들어오자 마자 라는 뜻을 가질 수 있다. 레온 모리스 (Leon Morris)는 주석하기를 이 세 가지 모두 의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가장 가까운 뜻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칼라디아 교인들이 거짓 교리에 너무도 빠르고 쉽게 빠져들었다는 것이다.

"다른 복음"이란 참된 복음과는 틀린 복음을 일컫는다.

1:7.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은 근본적으로 은혜가 아닌 도덕률이었다. 그것은 사실 "전혀 복음이 아니었다." 원문에서 "요란케 하여"에 쓰인 현재 분사형태는 그 유대 거짓 교사들의 활동이 계속해서 진해되고 있는 불안정한 상태를 나타낸다. 유대주의자들의 선동적인 활동들은 지속적이고 교묘했다. 이 거짓 교사들은 복음과 윤법, 믿음과 수고를 그들의 교리를 정당화하기 위해 적당히 섞었던 것이다.

1:8.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이 가르치는 것과 같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アナ떼마(anathema), 즉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 アナ汰마는 본래 좋은 의미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예를 들어 희생 제사물을 가리켰다. 하지만 나쁜 의미에서는 파괴될 도시를 가리켰다. 여기에서 그 용어는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를 의미하는 것으로 쓰여졌다.

왜 그렇게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격분하였을까? 이거슨 단지 자신의 가르침을 변호하기 위해 그랬던 것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을 지키려 했었던 것이다.

1:9-10. 9절 말씀은 8절의 가설적인 상황으로부터 실제의 구체적인 상황으로의 전환이다. 바울은 그의 복음을

변증했다. 그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이 되겠다는 그의 의지를 선언했다 (1:10).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믿어야하는 것일까? 바울은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단지 다른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복음이 아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했다. 믿음과 행위를 혼동하는 것은 은혜의 복음을 왜곡하는 것이다.

오직 은혜의 진리를 선포하고자 애씀 (1:13-24)

죄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과 하나님의 유일하고 온전하신 계시로써의 하나님의 복음의 단일성에 대한 가르침을 견고히 한 뒤, 바울은 이 복음의 단일성은 그 선포에 대한 성실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1:11-14. 그는 그의 복음에 대한 가르침이 다른 사람들의 가르침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시로부터 온 것이라고 언급함으로써 그의 복음의 신적 근원을 강조했다. 그는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하여 그의 거듭남과 소명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온 것임을 상기시켰다.

1:15. 바울은 복음을 선포하는 것에 대한 열정이 하나님께서 그의 태중에서부터 작정하신 것이었다고 확신했다. 바울은 다시 그의 사도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택정하시고(set me apart)" 와 "은혜로 나를 부르신(called me by grace)" 말을 사용함으로써 강조했다. 택정하시고(set apart)라는 말은 복음을 위해 따로 구분해놓았다는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롬 1:1).

1:16. 바울은 자신을 택정하시고 은혜로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내 속에(in me)"라는 말은 종종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의 거듭나는 체험 가운데 그리스도를 나타내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나에게(to me)"라는 말로 받아들여진다. 본문에서는 "나를 통하여(through me)"라는 말이 더욱 적절할 것 같다. 즉 하나님께서 바울의 거듭난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해 바울을 택정하셨다는 것이다.

1:17-24. 그는 계속해서 그의 사도권에 대한 변호를 했다. 그는 예루살렘 사도들과 상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만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메섹으로 돌아간 뒤 거듭난 후 그의 첫 예루살렘 방문 전에 아라비아에서 있었던 그의 경험을 연관시켜서 말하고 있다.

교사를 위한 제안들

수업계획 - 다양한 학습활동

삶과의 연결

1. 학습공과에 단원 1 첫 부분에 나오는 갈라디아서에 대한 설명이 나온 부분을 사용하여 바울과 유대주의자들 사이에 있었던 갈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강의하라. 유대주의자들이 누구이었는지 설명하라 (복음의 일부를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개념을 거부했던 유대인들).
2. 반원들이 어린 시절에 집에서 신었던 신발의 상표들이 무엇이었는지 말해보게 하라. 마커보드나 포스터 종이에 그들의 대답을 기록하라.

질문하라: 당신은 아직도 이 상품을 사용하는가? 왜? 왜 그렇지 않은가? (대답들은 아마도 이와 같을 것이다: 예, 나의 가족은 항상 그 상품을 애용합니다. 예, 그 상품의 질이 여전히 좋기 때문입니다. 예, 그것은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오, 그 상품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오, 그것은 예전보다 질이 좋지 않습니다. 아니오, 나는 더 좋은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독특한 은혜의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결코 바뀌지 않았었고, 앞으로도 어떤 더 좋은 다른 것으로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온전한 성실을 요구한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없다.

학습인도

3. 반원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라. 각 그룹에게 당신이 미리 준비한 과제가 기록되어 있는 종이를 나누어 주라.

과제 1: 문제 (갈라디아서 1:1-7)

- (a) 갈라디아 교회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 (b) 바울은 그 문제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는가?

과제 2: 거짓 선생들에 대한 경고 (갈라디아서 1:8-10)

- (a) 복음에 대한 바울의 태도는 어떠했는가?
- (b) 오늘날 미국에 거짓 선생들이 흘어져 있다고 생각하는가?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예를 듣다면 어떤 것인 있는가?

과제 3: 바울의 복음 - 하나님의 은혜 (갈 1:11-24)

- (a) 누가 바울을 사도로 세웠는가?
- (b) 바울은 그가 선포하고 있었던 복음을 누구에게서 받았는가?
- (c) 교회들은 바울을 어떻게 묘사했는가?

적용격려

4. 보충에 나오는 "사도들의 복음은?"이라고 제목이 붙은 학습공과의 내용을 이용하여 사도들에 의해 설파된 일곱 가지 기본적인 복음의 개념들을 반원들과 함께 읽도록 하라.

수업계획 - 강의와 질문들

삶과의 연결:

1. 9개의 플래카드나 작은 포스터 종이를 이용해서 다음을 각각 기록하라: 율법, 은혜, 믿음, 헬례, 의식, 교만, 편견, 유대주의자들, 자유. 기록한 것들을 교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라. (1단원이 끝날 때까지 붙여놓아도 좋다). 이 용어들이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썼던 이유가 되는 갈등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단어들임을 설명하라.

학습인도:

2. 본문 공부를 위해 학습공과에 나오는 글씨체의 아웃라인을 커다란 종이나 마커보드에 기록하라.

- I. 다른 복음은 없다 (갈 1:6-7)
- II. 전하는 자보다 전해지는 말씀 (갈 1:8-10)
- III.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바울의 복음 (갈 1:11-24)

반원 중 한 사람이 갈 1:6-7절 말씀을 소리내서 읽도록 하라. 학습공과의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제목 밑에 있는 내용을 이용하여 다음을 설명하라:

- 갈라디아서에서 보이는 바울의 심각한 어조
- 유대주의자들이 야기시켰던 문제들
- 바울이 분노한 이유

반원들에게 질문하라:

-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했던 복음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은혜, 그들을 대신해서 죽으셨던 메시아)
-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강조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다른 복음은 없다!)

적용격려

3. 요약하기 위하여,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의 7가지 기본적인 개념들을 함께 읽도록 하라. (학습공과 [보충]에 나오는 "사도들의 복음은?" 이라고 제목이 붙은 내용)
4.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우리가 진실로 신실하고, 헌신될 수 있도록 기도함으로써 수업을 마치라. 반원 중 한 사람에게 인도하게 할 수 있다.

제 2 과

믿음의 길을 선포하기

핵심본문

갈라디아서 2:1-6, 11-21

배경

갈라디아서 2장

주제

우리가 진실로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복음을 나타낼 것이다.

탐구 질문

복음이 당신의 삶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가에 있어서 취약점이 있는가?

교육 목표

삶의 모든 영역을 복음으로 사는 것에 있어서 가지고 있을지 모르는 취약점을 발견하게 한다.

성경주해

배경 이해

갈라디아서 2장에서 바울은 그의 사도권과 가르침을 계속해서 변호했다. 그는 예루살렘 사도들과의 한 만남을 연관시켰었다 (1:18-22). 그는 지금 그들과의 또 하나의 회합을 언급했다. 그 만남을 통해서 그는 또한 그의 교리의 진리 둘과 그의 사도권의 근본에 대해서 확인했다.

바울은 다음 세 가지의 진리들을 언명함으로써 그의 사도적 메시지와 소명에 대해 확증했다: (1)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지 않았다; (2) 예루살렘에 있던 이 지도자들은 그의 가르침과 사도권을 확증했다; 그리고 (3) 그의 삶과 사역은 은혜에 의한 구원의 가르침을 세웠다.

본문해석

복음의 진리에 관하여 말한 대로 행하기 (2:1-10)

2:1. "그리고 나서 (Then), NASB" 14년 후에 바울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다. 그는 아마도 다른 때에 예루살렘을 방문했었던 것 같다 (행 9:26; 갈 1:18).

"다시 (again)"라는 말은 두 번째(second time), 혹은 방문횟수를 규정짓지 않고 새로이 (anew)라는 의미로 둘다 쓰일 수 있다. 바울은 예루살렘을 5번 방문했다 (행 9:26; 11:30; 15:2; 18:22; 21:15). 사도행전 9:26절의

방문은 갈라디아서 1:18절의 방문인 듯 하다. 갈라디아서 2:1절의 예루살렘 방문은 기근시의 방문(행 11:30)이거나 혹은 종교회의 방문 (15:2)임에 틀림없다.

2:1절의 방문이 기근시의 방문인지, 혹은 종교회의 방문인지 이론을 완벽하게 뒷받침할 만한 근거는 없으므로 이것을 교리화시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다. 다행이도 어느 쪽이든 바울의 편지를 이해하는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바울은 그의 동료 두 명의 이름을 거론했다-- 바나바와 디도. 존경받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던 바나바가 바울의 이방인 사역에 동참했었다. 할례받지 않은 헬라인이었던 디도는 이방인들 가운데 사역했던 바울의 살아있는 예이었다.

2:2.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단행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은 사도권의 필요성에 대한 뒤늦은 깨달음이나 혹은 그의 메시지에 대한 사도들의 인준을 얻기 위해서 간 것은 아니었다. 그는 어떤 식으로 이었는지는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기에 갔던 것이다!

지혜로운 바울은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사사로이 (privately)" (사적인 만남에서) 이야기하였다. 바울은 그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 지지를 요구하지 않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는 확실히 했다.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에 의한 반대가 그의 사역을 방해하고, 그리하여 "달음질 하는 것이나 달음질 한 것이 헛되게" 할까 염려스러웠던 것이다.

2:3-5.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잘 알려진 헬라인이었던 디도가 할례받지 않는 것에 대해 동의했다. 일반적으로, 할례에 대한 필요성, 특히 디도의 할례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은 "거짓 형제들" 때문에 일어났다. 이 거짓 형제들은 유대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심각하게 믿고 있었다. 그러한 생각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가르치고 전한 복음에 모순되게 행하도록 만들었던 맹점이 되었다.

바울은 이 "거짓 형제들"은 그가 전한 복음과 사역을 무너뜨리기 위해 악의적으로 가만히, 몰래, 혹은 가장하여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고 있었다. 그들은 참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데 유일하게 필요한 그리스도 안의 믿음에 그들의 관습적, 혹은 유대적 율법을 더함으로써 영적인 노예로 만들려고 했다.

2:6-10. 이 구절은 2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게 한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1) 예루살렘 기독교 지도자들은 복음에 대한 그의 이해에 대해 아무 것도 더하지 않았다; (2) 그들이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3) 그들은 "교제의 오른 손"을 내밀었다; (4)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대한 그의 사역을 지지했다; (5) 그들과 그는 믿음을 통한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필수적인 복음에 전적으로 동의했다; (6) 그들과 그는 깊은 관계를 갖고 있다.

일관성 있는 행동에 있어서 말한 대로 행하기 (2:11-14)

2:11. 2:1-10절에서 언급된 예루살렘 방문이후 어느 시기에 베드로는 수리아 안디옥을 방문했다. 바울은 사람들 앞에서 그를 책망했다. 베드로의 행동이 잘못됐었기 때문이다.

2:12. 베드로가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을 "두려워" 했던 까닭은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존엄성을 잃게 할까봐 그래서 그를 책망할까봐 그랬다.

2:13. 베드로의 행동은 더욱 나쁜 영향을 끼쳤다. 다른 유대인들이 그의 위선을 같이 따라서 했기 때문이다. 이 유대인들은 암도 안디옥에서 살고 있었던 거듭난 유대인들이었을 것이다. 바울은 이방민족들에게 같이 사역함으로써 구원의 열매를 맛보았던 바나바마저도 유혹당했다는 것에 대해 너무 황당해 했다.

2:14. 바울은 베드로와 다른 유대인들이 똑바로 행동하지 않음을 보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바울을 꾸짖었다.

바울이 베드로를 면책하게 했던 문제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바울 사도는 베드로의 위선이 위험에 빠뜨리게 했던 기독교 진리의 핵심적인 내용을 보호하고 있었다. 베드로는 율법과 복음의 분리에 혼동을 일으켰던 것이다. 베드로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온전한 교제를 거부한 그 행동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유대인의 관습과 율법들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다.

의롭게 되기 위하여 관습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을 저지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유플주의로 빠지게 하는 문을 열어놓은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이었다.

베드로와 바나바는 바울의 면책을 받아들였던 것 같다.

삶에 진리를 적용시킴으로써 말한대로 행하기 (2:15-21)

2:15-16. "의롭게 되는 것"이란 사람이 의로와 지는 것을 말하기보다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되는 것을 의미한다.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인간적인 노력이나 윤리가 아닌 하나님 자신의 행하심으로 인간이 하나님으로 받을만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다.

2:17-19. 18절은 17절의 "그럴 수 없느니라 (absolutely not)"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이다. 바울은 만일 그가 율법이나 행위에 의한 의로움의 개념을 다시 세운다면 결국 그는 자신이 헐었던 그 법을 어기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20-21. 동사 "십자가에 못박혔나니 (have been crucified)"는 어떤 힘을 잃었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의미를 전달한다. 박해자 사울은 결코 자신의 노력으로 선교사 바울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바울은 자신의 삶과 경험들을 주관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자신 안에 있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살고 있음을 이해했다.

교사를 위한 제안들

수업계획 - 다양한 학습활동

삶과의 연결

1. 다음 이름이 기록된 플래쉬 카드나 종이를 준비하라: 빌리 그래함, 슈퍼맨, 테레사 수녀, 마이클 조던, 당신의 교회. 각 카드를 반원들에게 보여주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인지 말해보도록 하라. 질문: 왜 당신은 그러한 단어들이 떠올랐다고 생각되는가? 그리고 나서 다음 질문에 대해 반원들이 생각해보도록 하라:

당신의 직장동료들, 가족, 혹은 가까운 친구들이 당신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는 단어들은 무엇인가?

학습인도

2. 사람의 걸모양을 크게 종이에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해부라고 제목을 붙여라. 이것을 다음과 같이 기록된 커다란 종이나 혹은 마커보드 옆에 놓아라.

말한대로 행하기:

- 1) 열린 _____ 으로 (갈 2:1-10)
- 2) 열린 _____ 으로 (갈 2:11-14)
- 3) 열린 _____ 으로 (갈 2:15-21)

3. 한 사람이 2:1-10절을 큰 소리로 읽게하라. 그리고 나서 다른 한 사람에게 1)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정신, mind)를 채우게 하고 파란색 종이를 그려놓은 사람의 머리 부분에 붙이게 하라. 열린 정신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덕목이라고 언급하라.

4. 2:11-14절도 역시 3번과 같은 방법으로 한 뒤(팔, Arms) 다른 파란색 종이를 두 팔에 붙여라. 다른 사람을 향하여 두 팔을 벌리는 자세는 그리스도인의 덕목이라는 것을 언급하라.

5. 반원을 두 그룹으로 만들어라. 각 그룹에게 다음 과제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라.

그룹 1 -- 바울과 그가 전파한 복음에 대적하는 고발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묘사하라.

그룹 2 -- 그를 대적하는 고발에 대한 바울의 반박에 대해서 묘사하라.

각 그룹 중 한 사람이 대표해서 말하게 하라.

3) 역시 채우게 하라 (마음, hearts).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덕목임을 언급하라.

적용격려

6. 반원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하라:

● 만일 내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마에 파란 점을 붙이고 다니는 것으로 표시된다고 결정된다면 당신은 기꺼이 파란 점을 붙이고 다닐 것인가?

● 당신의 삶의 영역에서 당신이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아 고민하는 부분이 있는가?

수업계획 - 강의와 질문들

삶과의 연결:

1. 다음과 같이 쓴 커다란 종이를 반원들이 보도록 하라:

말한 대로 행하기....

열린 정신으로 (갈 2:1-10)

열린 두팔로 (갈 2:11-14)

열린 마음으로 (갈 2:15-21)

“말한 대로 행하기”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반원들이 토론하도록 유도하라.

학습인도 :

2.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 사이의 문제를 설명함으로써 학습을 유도하라 (“열린 정신”과 갈 2:1-10에 있는 학습 공과를 사용하라).

몇 명의 반원들에게 2:1-10절을 나누어서 읽을 수 있도록 하라 (2:1-2, 2-5, 6-10). 마커보드에 다음과 같은 단어들을 써라: 갈등, 행동, 해결, 확증. 다음 질문에 대해 대답하도록 하고 그것을 반원 중의 한 사람이 각각의 단어 밑에 기록하도록 하라.

-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와의 갈등은 무엇이었는가? (이방인들에 대한 그의 설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받게 하는 일을 꺼림.)
- 바울은 어떻게 행동을 취했는가? (개인적으로 그를 반대하는 자들을 만나서 이방인들을 향한 그의 사역의 권위로써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의 지위를 설명.)
- 갈등은 어떻게 해결되었는가?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은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의 사역 위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심을 인식하게 되었고, 그에게 교제의 오른 손을 내밀.)
-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 의해 바울에게 주어진 마지막 확증은 무엇이었는가? (그들이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동안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도록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을 인식했다.)

갈등에 대한 바울의 접근은 교회들을 위해 유익한 예가 될 수 있을까? 왜 그런가? 왜 그렇지 않은가?

3. 사도행전 10:9-16절에서 고넬료와 만났던 베드로의 이야기를 연결시켜라. 반원 중 한 사람이 사도행전 10:28,34절을 읽게 하고 그가 그 경험으로부터 무엇을 배웠었는지를 질문하라. 질문: 하나님께서 당신을 교훈하기 위하여 당신의 삶 속에 있었던 경험들을 사용하신 때를 말할 수 있는가? 반원들이 나눌 수 있도록 하라.

4. 인도자 지침서에 있는 성경주해의 내용을 이용하여 간단한 강의를 하라.

적용격려

5. 반원들이 당신의 인도 아래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라. 눈을 감게 하고, 잠시 침묵의 시간을 가지라. 조용한 목소리로, 그들이 열린 정신으로, 열린 두팔로,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는데 있어서 계속적인 장애물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도록 하라. 당신이 말한 것과 일치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는가?

6. 우리의 생각과, 태도 혹은 행동의 변화가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달라는 깊은 기도로 묵상 시간을 마쳐라.

제 3 과

믿음 - 유일한 길

핵심본문

갈라디아서 3:1-18

배경

갈라디아서 3:1-18

주제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는 믿음으로 오는 것이지 선행이나 혹은 어떤 규율들을 지킴으로써 오는 것이 아니다.

탐구 질문

사람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참된 관계를 가질 수 있는가?

교육 목표

왜 선행이나 혹은 어떤 규율들을 지키는 것이 아닌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과 참된 관계를 가질 수 있게 하는지 설명할 수 있다.

성경주해

배경 이해

그의 메시지와 권위를 변호한 후 (갈라디아서 1--2장), 바울은 자기가 가르쳤던 복음의 진리를 확립했다. 이 복음은 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온다는 것과 율법의 행위(의식)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얻는 일에 아무 소용이 없음을 선포했다.

바울은 율법의 옛 방식과 믿음의 새 방식을 비교했다. 그는 율법은 구약의 가르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것은 어떤 사람도 의롭게 할 수 없었다는 것을 가르쳤다. 더군다나, 그 율법은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똑같이 지킬 필요가 없었다.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음에 비춰 볼 때 율법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세우지 않았고, 세워 줄 수도 없었다.

본문해석

율법의 옛 방식과 믿음의 새로운 방식에는 엄청난 차이들이 존재한다. 바울은 이 차이점들을 갈라디아서 3:1-18절에서 설명한다.

최고 자리의 믿음 (3:1-9)

3:1. 바울은 당황스러움과, 놀라움, 분노, 그리고 비평적인 자세로 말했다. "어리석도다 (foolish)"라는 용어는 제정신이 아닌, 무식한, 생각이 없는, 혹은 영적 분별력이 없는 것을 일컫는다.

바울은 또한 "꾀다 (bewitched)"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이 단어는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있는 상태를 말했다. 이는 종종 마술적, 주술적, 초능력적인 힘, 혹은 "악한 눈"을 의미한다. 마귀에게 휩쓸 당했다는 것만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행위에 의한 구원으로 돌아선 행동을 설명할 수 있다. 왜냐하면 바울은 믿음에 의한 구원을 충분히 설명하고 가르쳤었기 때문이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장면을 회화적으로 (바로 그들의 눈앞에 보이듯) 제시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주는 이미지는 어떤 역사적 사실을 서술한 것일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었다. 십자의 의미와 그 중요성을 이해했던 사람은 행위에 의해 의롭게 될 수 있다는 모든 형태의 오해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정상이었다.

3:2. 두 번째로 바울은 그의 독자들이 "다만 이것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 있었다. 그들은 율법이 명령하는 것들을 행함으로써 ("율법의 행위") 성령을 받았는가, 아니면 복음의 메시지를 듣거나 믿음으로써 성례를 받은 것이었는가 (문자적 번역: 믿음에 관해 듣는 것)? 이것을 질문했던 것은 다음을 대답해주기 위해서였다: 행위는 성령을 받는 일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3:3. 세 번째, 바울이 염려한 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의 "어리석은" 태도이었다 (3:1절의 단어와 같은 말) -- 즉,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온전케(perfected) 하려 (NASB)"는 영적 무지와 정신없는 행동을 책망했다. 새미국표준성경(NASB) 번역의 "온전케 (Perfected)"는 "성숙된 (matured)" 상태를 의미한다. "육체"란 여기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로워지려는 행위를 가리킨다.

3:4. 네 번째 질문은 독자들의 경험에 관한 것이었다. "괴로움"이란 이 경우에 어떤 "경험"들을 일컫는다. 이 놀라운 축복들이 아무런 것도 아니었던 말인가? 바울은 그들에게 좀더 나은 것들을 기대했다는 것을 가리켰다. 즉, 바울은 그들이 복음을 저버리지 않고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을 오히려 포용할 수 있는 지혜를 기대했었던 것이다.

3:5. 다섯 번째 질문은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들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나 듣고 믿음에서나는 질문이었다. 말할 것도 없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내린 성령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에 의한 것이었다. 그들 안에서, 그들을 통해 나타났던 성령님의 역사는 완전히, 철저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의 믿음에 의한 것이었지 율법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3:6. 바울은 유대 민족의 선조인 아브라함의 경험을 가리키면서 믿음이 최고 우월함을 강조했다. "아브라함 조차도 (even so Abraham, NASB)" 갈라디아 교인들과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음을 아브라함의 실제 경험을 통해서 보여주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아브라함에 관해서 알았다. 아마도 복음을 들을 때, 혹은 아브라함을 행위에 의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여겨졌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써 가르친 유대주의자들을 통해 들었을 것이다.

바울의 대답은 칠십인역(Septuagint)으로 알려진 구약성경의 헬라어 역본 창세기 15:6절을 인용함으로써 왔다 (롬 4:4:3, 22; 야 2:23절도 역시 인용됨). 이 번역본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탄없이, 순종적으로 복종하는 그의 마음이 잘 묘사되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율법을 지키는 것에 의존하지 않는 하나님 안에 적극적인, 절대적인 신뢰를 두는 것을 의미했다.

3:7.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들은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임을 "그러므로...알지어다 (understand)" (문자적으로, 그러므로 너희는 경험을 통해서 한다). 유대주의자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은 할례를 행함으로써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이 이미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선포했다.

3:8. 바울은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족에 들어올 수 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고 선포했다. 바울은 아브라함 안에서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선언했던 성경을 보여주었다 (창 12:3). 아브라함을 통한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나눔은 생물학적 관계를 통해서 얻을 수 없고 오직 믿음의 관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었다.

3:9.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아닌 믿음의 백성들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함께 축복을 받는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은 믿음의 최 우월성을 입증했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에 의한 의는 율법의 행위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것이다.

행위에 의한 구원의 무익함 (3:10-12)

3:10. 바울은 언명하기를 율법의 행위 아래 있는 자들 (예를 들어 유대주의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다고 했다. 그 이유는 어느 누구도 율법의 모든 국면, 혹은 규정들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한 것에 신뢰를 두는 것은 유익도 없고 위험한 것이다. 유대주의자들은 작은 규정들을 간파하려고 하겠지만 바울은 결코 그럴 수 없었다.

3:11.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했다. 바울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했는데 3:11절에서 하나, 그리고 3:12절에서 하나를 각각 인용했다. 이 인용말씀들은 의로와지는데 있어서 율법의 무력함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먼저 하박국 2:4절의 말씀은 행위가 아닌 믿음이 삶의 원천이라는 말씀이었다.

3:12. 두 번째 구약인용 말씀은 레위기 18:5절 말씀이다. 바울은 오직 율법을 순전하고 완벽하게 지키는 자만이 의롭게 된다는 것을 가리켰다. 하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 율법의 요구들을 모두 이루셨으며, 오직 그분만이 믿는 자들을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믿음 안에 있는 자유 (3:13-18)

3:13-14.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로 인한 형벌을 스스로 대신 받으심으로써 인간을 위해 행동하셨다. 바울은 일구절들에서 세 개의 놀라운 진리들을 설명했다.

(1) 행위: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속량 (redeemed)"했다는 것은 돈을 내거나 혹은 대리하여 값을 치름으로써 해방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바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셨고 우리에게,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화로운 자유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방법: 이러한 구속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3) 목적: 그 목적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약속된 성령을 받기 위해서이었다.

3:15. 바울은 자기가 신성한 진리를 보여주기 위해 인간 사이에 있는 일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가리켰다.

인간의 언약에 관해 말하면서 바울은 올바르고 완벽하게 맺어진 인간 사이의 언약은 깨거나 바뀔 수 없다는 것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상기시켰다. 만일 그러한 것이 인간적 협정들 사이에 지켜야 할 사실이라면, 하나님과 맺은 협정 혹은 계약은 얼마나 더 지켜야 하겠는가?

3:16. 바울은 아브라함에게 맺은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면서 이 약속은 절대로 깨거나 수정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했다.

3:17. 사도 바울은 "내가 이것을 밀하노니"라고 말하면서 15절의 주제로 다시 돌아왔다. 협정(약속)은 이미 하나님에 의해 인준되었고 그 동의서 뒤에 온 율법이 그것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다. 율법은 결코 믿음에 의해 의롭게 되는 약속을 물리칠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이었던 것이다.

3:18. 바울은 만일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유업이 율법에 기초한 것이라면 그것은 자유로운 선물이나 혹은 약속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쳤다. 율법과 약속은 매우 다른 것이라서 서로 연합될 수 없다. 바울은 "유업"을 땅이상의 것으로 그 의미를 넓혔다. 그 약속은 모든 축복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포함했다.

교사를 위한 제안들

수업계획 - 다양한 학습활동

삶과의 연결

1. 각종 필기 도구들 (마커펜, 연필, 종이, 공작종이, 가위, 틀, 혹은 접착 테이프)를 준비하라. 커다란 종이에 과제를 써서 학습활동을 위해 필기 도구와 함께 책상 위에 놓아라. 수업이 시작되면 반원들이 과제를 읽게하고 지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라. 과제는 다음과 같다:

두 개네지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누라. 함께 믿음의 정의를 내리도록 하라. 다음 활동을 하면서 정의를 창조적으로 나타내라.

- 그림을 그리거나 시각적 이미지를 만들라.
- 짧은 시나 문장을 만들어서 큰 소리로 읽어라.

학습인도

2. 다음의 수업 아웃라인을 포스터 종이에 기록하라.

3. 이 활동을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는 데 활용하라. 반원 중 한 사람이 출애굽기

3:1-4절을 소리내서 읽도록 하라. 다른 사람에게 요한복음 9:13-15; 24-25; 35-38절을 소리내서 읽게하라.

반원들이 모세와 소경된 자의 빙칸을 채워 넣도록 하라.

모세와 소경의 빙칸을 다 채운 뒤 성령을 통한 반원들 각자의 하나님과의 체험 혹은 경험들을 "당신은...."

모세는 말했다:
모세는 느꼈다:
모세는 했다:

소경은 말했다:
소경은 느꼈다:
소경은 했다:

당신은 말했다:
당신은 느꼈다:
당신은 했다:

부분에 채워 넣도록 하라. 만일 아무도 자원하여 하는 자들이 없다면 당신 자신의 경험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라. 각각의 경험 속에 있는 공통적인 점은 믿음이었다는 것을 지적하라.

4. 반원들을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라. 각 그룹에 대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각 그룹을 위해 복사하라):

갈라디아서 3:6-14절과 학습공과 "아브라함의 경험은 믿음이 유일한 길임을 증거한다" 부분을 활용하여 다음 질문에 답하라.

-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말씀하셨는가?
- 할례의 중요성은 무엇이었는가?
- 왜 모든 율법을 지키지 않는 모든 사람은 저주를 받았는가?
- 바울은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라고 선포한 사람들은 누구이었는가?

적용격려

5. 이 작가의 개인적 경험을 반원들과 함께 나누라:

나의 남편 로니는 텍사스에 있는 산 안젤로 제일침례교회의 교육/ 행정 목사인데 한 가지 그만의 규칙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아주 유익한 것으로 증명되어 왔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어느 것도 강압하지 말라!" 그것은 수년 동안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때마다 좋은 지침으로 작용해 왔다.

질문: 당신이 무엇을 결정할 때 도움이 되곤 했던 좋은 규칙이나 생각이 있는가? 그 규정이나 원리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 규칙이 당신을 구원받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수업계획 - 강의와 질문들

삶과의 연결

1. 질문: 지난 10년 동안 당신이 이룬 큰 일들은 무엇인가? 반원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지라.

믿음이 유일한 길이다

- I. 성령님의 임재는 믿음이 유일한 길임을 증거한다 (갈 3:1-5)
- II. 아브라함의 경험은 믿음이 유일한 길임을 증거한다 (갈 3:6-14)
- III. 계약의 불변성은 믿음이 유일한 길임을 증거한다 (갈 3:15-18)

학습인도

2. 한 사람이 갈라디아서 3:1-5절을 읽는 동안 다른 반원들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물었던 질문들이 무엇이었는지 경청하도록 하라. 반원들이 사도 바울의 질문이 무엇이었는지 듣기 위하여 인도자 지침서에 있는

성경주제를 활용하라.

3. 칠판에 아브라함이라고 크게 쓴후 학습공과와 창세기의 말씀을 이용하여 아브라함의 일생에 일어났던 주요한 일을 간단하게 설명하라. 그의 부르심 (창세기 12:1-4)과 그의 하나님과의 경험에 있어서 믿음의 위치를 함께 설명하라.

4. 갈라디아서 3:6-9절에 나오는 믿음의 가족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역할에 대한 바울의 요약을 크게 읽어라. 반원들이 다음의 질문을 생각하면서 들을 수 있도록 하라: 왜 아브라함은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았는가?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인가?

5. 갈라디아서 3:10-14절을 소리내서 읽어라. 이 구절에 나오는 인용 말씀이 무엇인지를 가리켜라. "율법의 저주" (3:13)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학습공과와 인도자 지침서에 나오는 주제를 참조하라.

6. 갈라디아서 3:15-18절을 읽으면서 다음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하라.

-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축복을 받을 통로가 될 한 씨는 누구인가?
-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아브라함의 축복에 대한 바울의 마지막 결론은 무엇인가?

적용격려

7. 조용히 지시에 따라 묵상시간을 가짐으로써 수업을 마치라. 조용히 반원들이 하나님과 처음 만났던 체험을 회상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셨는지 생각해보도록 하라. 그때 이후 그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믿음은 어떻게 성숙해왔는가?

8. 하나님께 믿음의 유일한 길을 보여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기도로 마치라.

제 4 과

믿음의 길을 선포하기

제 4 과

적합한 시기에

핵심본문

갈라디아서 3:19-4:11

배경

갈라디아서 3:1-4:31

주제

적합한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의 노예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다.

탐구 질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서 율법은 어떤 역할을 했는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규칙이나 법규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가?

교육 목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의 경이로움과 율법의 차지하는 위치를 비교할 수 있다.

성경주해

배경 이해

바울은 두 개의 질문을 제시한다. "율법의 목적은 무엇인가?" (3:19); 그리고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3:21).

처음 질문에 대해 그는 율법은 잠정적인 것이었고 초보적인 협정이었다고 대답했다 (3:19-20). 두 번째에 대하여는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거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대한 준비단계이었다는 것이다 (3:21-24).

또한 바울은 은혜 아래 있는 신자의 위치를 묘사했다 (3:25-4:31).

본문해석

율법의 역할 (3:19-24)

3:19. 바울은 율법은 더해진 것이었고, 잠정적인 것이었고, 중개적인 것이었고, 준비단계의 것이었다고 가르쳤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 언제나 은혜를 통하여 이 축복을 주시고자 하셨다. 율법은 더해진 것이었다 -- 은혜에 보충적인 것이었지 주제가 아니었다.

율법은 오직 "범법" (죄악된 행동들)에만 연계시켰다. 율법의 목적은 다음과 같았다: (1) 그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하여; (2) 그리스도와 그의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 (3) 인간이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는 삶을 살 수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이었다.

3:20. 이 구절에 대한 수많은 해석이 있다. 가장 적합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중재자들 (천사와 모세)을 통해서라기보다는 아브라함에게 직접적으로 약속을 하셨다는 것이다.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두 편이 필요하지만 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셨다는 것이다.

3:21. 바울은 그의 견해가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어떤 형태이든 규칙을 지키는 일, 율법주의, 혹은 의식이 인간을 죄인으로부터 의인으로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반박했다.

3:22.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의 노예라고 선언했다.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둔" 이유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죄의 노예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죄로부터 이러한 축복스런 탈출과 생명으로 들어감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3:23. 바울은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은 감옥의 간수같은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약속으로부터 갖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메시아가 온 이후,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 진리가 드러났다.

3:24. 율법은 간수이었을 뿐만 아니라 봉학선생이었다. 봉학선생은 그 당시에 미취학아동들을 돌보기 위해 부유한 그리스인들이나 로마인들이 고용했던 밑을만한 노예이었다. 봉학선생은 여섯 살때부터 열 여섯 살 때까지 아이들을 가르치고 훈계하고 감독했다. 바울은 이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두 가지를 설명했다. 첫째로, 율법의 훈계적 (교육적이 아님) 특징을 가리켰다. 둘째로 봉학선생이 성인이 되는 16살 이후에는 더 이상 그 영향권 아래에 있을 필요가 없듯이 율법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온전한 믿음이 오면 더 이상 그 영향을 발휘 할 수 없다는 것이다.

3:25-26.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지위는 신자들이 온전히 자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새로운 지위는 유대주의자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거나 순종함으로써 온 것이 아니다. 아들 됨의 지위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온다.

3:27. 바울은 침례가 구원을 가져다준다고 제시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는 할례와 비유하기 위해 침례에 의해 상징화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설명한 것이었다. 침례의 상징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고 하나님 가족의 형상 같이 되려는 것을 가리킨다.

만일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들이 받은 침례의 의미를 좀더 심사숙고했었다면 그들에게 할례나 다른 유대인의 의식을 요구하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3:28.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지위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왔다. 그는 여기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덧붙였다. 유대인들은 종종 그들이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기도를 드렸다. 헬라인 (그리이스인)이나 바사인 (페르시아인), 그리고 로마인들 역시 같은 식으로 그들이 그 민족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 그들의 신에게 감사를 드렸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종족 (유대인이나 헬라인), 성 (남자와 여자), 사회적 지위 (종과 자유)가 더 이상 교제의 장벽이 될 수 없다.

3:29. 바울은 신자의 새로운 지위에 대한 세 번째 이유를 내 놓았다 --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다. 이방인 신자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그들은 유대의 율법이나 혈육에 의한 상속자들 (유업을 이을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에 의해 그러한 신분이 된 것이다.

4:1. 미성년자 (아이는 아니지만 성인이 안된)는 비록 그가 모든 재산을 소유하게 되지만, 그 재산에 손을 댈 수 없다는 점에서는 종보다 나을 것이 없다. 아들과 종 둘 다 아버지의 권위 아래 있는 것이다.

4:2-3. 아들은 아버지가 그 아들을 성인으로써 받아줄 시기가 올 때까지는 그의 아버지의 권한 아래 있어야 한다. "후견인"은 미성년인 아이의 도덕적 육체적 훈육을 위해 아버지가 지명한 사람들이었다. "청지기"는 우선적으로 이 아이의 재정적 문제를 장악하고 조절한다. 아버지가 그 아이가 언제 유업을 이을 특권을 갖게 될지를 결정했다.

4:4-5. 그리스도의 오심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 아주 정확한 시기에, 그는 임무와 함께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 그리스도의 오심의 목적은 속량과 양자됨의 용어로 설명된다. 말할 것도 없이 바울은 3:13절에서 그랬듯이 속량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일과 연결시켰다.

로마인은 소년기에 있는 노예를 그의 가족 안으로 받아들여 아들이나 상속자로 삼을 수 있었다. 바울은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는 은혜로 종으로부터 아들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가르쳤다.

4:6. 신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는 그들이 마음 안에 있는 성령님의 증거를 경험한다는 실재 위에 있다. 신자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짖게 한다. "아바"는 아이가 아빠에게 부르는 가장 친근한 아랍어로써 "아빠 (Daddy)"와 같은 말이다.

4:7-9. 갈라디아 교인들은 전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우상들을 숭배하며 참된 하나님을 알지 못했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에 대해 배웠으면서도, 어떻게 다시 종노릇하는 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 여기서 "약하고 천한"이라는 단어는 이전에 숭배했던 우상들과 유대주의자들의 율법주의를 동시에 일컫는다.

4:10-11. 유대 관습은 네 개의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 "날" (매주 안식일), "달" (매달 축제),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과 같은 특별한 날들의 축제), "해" (안식년, 혹은 희년 등). 유대 율법주의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끌렸기 때문에 바울은 그의 수고와 목적이 허사가 될까 염려가 됐다. 11절은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일은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것과 똑같은 행태라고 믿었던 바울의 확신을 보여준다.

복음에 대한 믿음이 없음에 대한 호소 (4:12-31)

이 구절들은 복음의 진리에 대한 선포와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가르침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라는 호소를 담고 있다. 참된 복음에 대한 믿음의 호소는 먼저 개인적인 요구 (4:12-20)로부터 왔다. 다음에는 하갈과 사라에 대한 풍유적 설명을 하는 방법으로 호소를 했다 (4:21-30). 31절은 이 이야기를 요약짓는다. 신자들은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이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율법적 측정이나 혹은 규율에 얹매인 종이 아니라 유업을 이을 자들의 공동체에 속한 것이다.

교사를 위한 제안들

수업계획 - 다양한 학습활동

삶과의 연결

1. 다음의 지난 주 내용의 강의를 요약함으로써 수업을 시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라.

-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 모세는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이후 430년이 지나서야 율법을 받았다. 율법이 그 약속을 바꾸거나 무효화시킬 수 없다.

-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들은 믿음의 자손들이다.

학습인도

2. 반원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라. 각 그룹에게 다음 사례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라.

A. 벤은 35살된 독신남이다. 그는 매우 짜임새 있는 생활을 한다. 그의 인생 목표중의 하나는 성경에서 그가 발견한 모든 규율들을 포함한 모든 규칙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는 단지 성경만 읽고 기독교 음악만 듣는다.

갈 3:19-4:3절을 이용하여 바울이 벤에게 쓰는 편지를 작성하라. 편지 내용은 율법이 그를 가두는 간수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이다.

B. 도리스는 최근에 남편을 읽은 69살된 과부이다. 어느날 그는 노인들을 위한 컴퓨터 클래스에서 신디를 만났다. 신디는 주일예배에 그녀를 초대했고 몇 주 후에 도리스는 수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한번도 성경을 혼자 읽어 본적이 없었어요. 나는 하나님이 무언가 나에 대해 언짢으시면 나에게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으로만 알았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율법을 공부하고 난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기대하고 계시는지 올바로 잘 알게 되었어요. 나도 당신처럼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사례를 살펴보고, 율법이 어떻게 봉학선생과 같은지, 그리고 구세주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C. 28살인 로렌은 두 아이의 엄마로서 행복하게 가정생활을 꾸려 나가고 있는 주부이다. 그녀의 아버지 스티븐은 그녀의 삶 속에서 여전히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녀가 어떤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 조언과 지혜를 구하는 분이다. 그는 항상 그녀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아버지인 듯 하다.

갈라디아서 3:19-25절과 이 이야기를 함께 연구하라. 율법이 어떻게 후견인과 청지기가 될 수 있는지 나누도록 하라.

3. 갈라디아서 4:11절을 반원들이 속으로 읽으면서 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해 화가 났었는지 발견하게 하라. 그리고 나서 이 질문들에 대해 토론하라:

- 바울은 우리의 교회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사는 방식에 대하여 어떻게 느낄까? 규칙이나 율법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장유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졌던 경우가 있었는가?

- 어떤 의식이 우리의 예배처럼 되어버린 부분들이 있지는 않은가?

적용격려

4. 반원들이 다음의 질문에 대해 서로 토론할 수 있도록 둘씩 짹지어서 앉도록 하라: 율법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여전히 필요한가? 서로 짹기도를 함으로써 수업을 마칠 수 있도록 하라.

수업계획 - 강의와 질문들

삶과의 연결

1. 질문: "정확한 시간"이 매우 중요한 문제인 사람들을 생각해 낼 수 있는가?

(가능한 대답들: 캐의 곱는 사람, 딜리기 선수, 신생아를 낳을 부모들, 약을 먹는 환자, 응급차 운전수 등)

학습인도

2. 다음 수업 아웃라인을 마커보드나 포스터 종이에 기록하여 붙이라.

3. 한 사람이 갈라디아서 3:19-23절을 소리내어 읽게하라. 학습공과와 인도자 지침서에 있는 성경주해를 사용하여 율법이 어떻게 감옥의 간수처럼 보일 수 있는 것인지 설명하라.

정확한 시기

율법을 위하여	(갈 3:19-4:3)
그리스도를 위하여	(갈 3:4-6)
당신을 위하여	(갈 3:7-11)

4. 메시아의 오심으로 인한 자유에 대하여 간략한 강의를 하라. 갈라디아서 3:28절 "율법을 위한 적합한 시기"라고 제목이 붙은 학습공과의 주제를 사용하라. 토론을 이끌기 위해 다음 질문을 사용하라: 십계명을 처음 배웠던 때를 기억할 수 있는가? 당신의 삶 속에서 그 계명은 어떤 교훈적 역할을 했는가?

5. 왜 하나님께서 2000년 전의 바로 그 시기에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셨는지 학습공과 보충에 있는 "때가 차매"를 이용하여 설명하라.

6. 4:12-31절에 나오는 사라와 하갈의 비유를 소리내서 읽게 하라. 이 비유가 무엇에 관한 것인지 설명하라. 포스터 종이에 다음 단어들을 적어라.

율법

하갈 (시내산 계약)

이스마엘 (종)

유대주의자 (할례를 주장함)

그리스도

사라 (그리스도 안의 새로운 계약)

이삭 (아들)

참된 신자들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주장)

바울이 율법과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차이점을 보여주기 위하여 어떻게 이 이야기를 사용하였는지 설명하기 위하여 "자유의 비유"로 제목이 붙은 학습공과와 이 것을 활용하라.

적용격려

7.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자유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또 정확한 시기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에 감사를 드리는 기도로 수업을 마치라.

단원 2 믿음으로 사는 삶

제 5 과

그리스도인의 자유

핵심본문

갈 5:1-6, 13-26

배경

갈 5장

주제

그리스도께서는 노예 상태와 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는데, 이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다.

탐구 질문

만약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다면, 내가 원하는 어떠한 것도 다 할 수 있는가?

교육목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자유를 주장하도록 한다

성경주해

배경 이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방법으로 시작하여(갈 3-4),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6장에서 기독교의 의무 중심적인 면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심으로 얻어진 자유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바울은 설명한다. 율법으로 인한 어떤 행위도 요구하지 않는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도록 요구된다- 이는 죄의 노예 상태로부터의 해방된 당연한 결과이다.

갈 5:1은 이 부분과 그 앞부분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1절은 논리적으로 적절히 4:31 또는 5:2과 함께 묶여질 수 있다. 몇몇 번역은 이 구절을 별도의 문단으로 취급하기도 한다. 아마 이 구절은 앞의 내용과 뒤에 이어지는 내용의 긴밀한 관계를 지적하되, 앞이나 뒤 어떤 부분에 배타적으로 속해있지는 않는 것 같다.

전반적으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위협하는 두 가지를 논하였는데 즉 (1) 율법주의의 위험 (5:1-12)과 (2) 방종의 위험 (5:13-15)이다. 첫째는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며, 둘째는 자유의 오용을 말한다. 이런 위험들을 경고하면서,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의 행동들을 묘사한다 (5:16-26).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죄의 속박에서 구원되었다.

본문해석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위협하는 율법주의의 위험성 (5:1-6, 12)

이 부분에서 바울의 가르침은 확인 (5:1a), 훈계 (5:1b), 경고 (5:2-6), 그리고 호소 (5:7-12)를 포함한다.

5:1.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자유를, 즉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유를 주셨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양심의 자유는 인간의 선한 행위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예비하심으로 얻어진다.

바울은 이러한 확인으로부터 갈라디아인들에게 "굳세게 서라" ("네 발꿈치를 단단히 강하게 땅에 불여라") 그래서 다시 속박되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훈계의 말로 바꾸고 있다. "그러므로" (NASB) 또는 "그래서"는 굳세게 서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에 대한 의무이며 특권인 것을 나타낸다. 그들의 자유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지불한 대가 때문에 갈라디아인들은 힘써 이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 한다.

갈라디아인들은 그들에게 노예의 짐을 지게 하는 모든 것을 배제해야 한다. 바울은 주인이 동물을 길들이기 위해 사용한 명예를 묘사하고 있다. "명예"는 원하지 않는 짐, 노예상태의 비유적 의미이다.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이 이방 종교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것을 지적하기 위해 "다시"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바울은 그들이 유대 율법주의의 노예로 전락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5:2. 바울은 "내 말을 주목하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라"고 하면서 그 다음 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바울은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율법을 은혜 위에 놓는 위험을 경고하며, 한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5:2-6).

5:3. 두 번째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갈라디아인들이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할 의무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울은 그런 의무를 다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다고 가르쳤다.

5:4. 세 번째 결과는 갈라디아인들이 기독교를 떠나 유대교에 연합하게 된다. 바울은 실제로 몇몇 사람들이 "율법에 의해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한 노력은 "그리스도로부터 끌어내며" (NASB) "그리스도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 단어는 소원하게 되는 것, 파괴되는 것, 무효로 되는 것,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또한 그리스도로부터의 완전한 분리를 의미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배교를 의미한다. 즉, 갈라디아인들이 유대 율법주의를 받아들이면 그들은 이미 받았던 구원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이 문제를 살펴볼 것이다

바울은 "너희는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라고 언급함으로써, 유대 율법주의를 받아들였을 때 나타나는 영적인 심각성을 보여주었다. 은혜이외에 할례를 (또는 어느 유대 의식도) 덧붙여서는 않된다. 행위로 인해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것은 은혜를 포기하는 것이다.

5:5.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들의 인간적 행위가 아닌, 단지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승인되었다. 바울은 이런 세 가지 구원의 측면을 지적했다: (1) 성령에 의함 (2) 인간의 선한 행위가 아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함 (3)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실 것을 갈망하므로 영원한 것이다.

5:6.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헌신한 사람들에게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런 힘도 의미도 없음을 언급하며 이 문제를 끝맺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 안에 나타나는 믿음이다.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핵심적인 가르침이다.

우리는 해석적인 문제를 살펴보아야 한다. 바울은 5장 4절에서 유대 율법주의를 따랐던 사람들이 구원받았지만

지금은 그 구원을 잃어버릴 위험에 있다고 말한 것인가? 적어도 네가지 가능성성이 존재한다.

1. 여기에서 바울의 말은 갈라디아인들이 구원을 잃을 위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5:2),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5:4), "은혜에서 떨어진" (5:4)에서와 같은 구절들은 구원받은 사람도 다시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해석되며,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배교의 가능성을 확인한다.

침례교인들은 성도의 견인을 고수하여 다음과 같이 그들의 믿음을 표현한다:

모든 참 성도들은 끝까지 견디어낸다.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인정받고 성령에 의해 의로움을 입은 사람들은 결코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보존 될 것이다.¹ 이런 믿음은 요 10:28-29, 골 3:3, 딤후 1:12, 앱 1:13-14, 앱 2:8-10과 같은 구절에 근거한다. 이 성경 구절들은 침례교인들로 하여금 한번 구원받은 자는 결코 그 구원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주었다. 어떻게 이런 믿음과 같 5:1-6에서 바울의 가르침이 함께 공존 할 수 있을까?

성경 해석의 기본적인 원리는 성경의 어떤 해석이, 더욱 명확하고 확실한 가르침과 서로 상충이 되었을 때는, 후자에 맞추어 재해석하는 것이다. 다른 성경 저자와 함께, 바울은 성도의 견인을 확신했다. 그러므로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이 구원을 잃을 위험에 있다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은혜에서 떨어진"의 개념을 내포하지 않는 구절들의 다른 해석을 찾아야 한다.

2.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이 복음을 알지만 실제로 그것을 받아들이지는 않았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생명의 말씀을 맛보기는 했지만 깊이 맛보지는 않았다 (히 5:11-6:12, 특히 6:4). 이런 견해에서 보면, 사람들은 결코 구원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요일 2:18-20; 베후 2:17-22) "은혜에서 떨어진다"는 것이다. 아마 바울은 유대 율법주의를 받아들여 행위에 의해 구원을 얻으려는 것은 그들이 결코 구원받은 적이 없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말하려는 것 같다.

3. 바울은 유대의 율법주의를 받아들인 갈라디아인들이 구원의 평안과 기쁨을 잃을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죄사함의 확신과 영생의 보장을 가진 복음의 자유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지위를 스스로 얻으려고 노력해야 하는 위치로 옮겨가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진실로 근심과 염려의 상태에 놓이게 만든다. 바울은 갈라디아의 그리스도인들이 행위 중심의 종교의 몇에 빠져드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4. 바울은 배교가 가능하지만 그것이 일어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갈라디아인들에게 속박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심각한 결과를 야기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확신하지는 않았다. 갈 5:1-6의 말들은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것을 가정한 것이 아니며, 무서운 결과에 대한 경고를 위해 써여졌다. 갈 5:7-12은 이것을 지지하고 있다.

성경공부 참가자 각자는 가장 마음에 드는 해석을 선택한다. 필자는 위에서 세 번째 해석을 좋아하지만 네 번째 해석의 가능성 또한 받아들인다.²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방종의 위험 (5:13-15)

자유는 방종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다.

5:13 바울은 확언을 가지고 시작한다. 자유를 위하여 갈라디아인들은 부르심을 입었다. "부르심을 입다"는 말은 갈라디아인들이 아직 그 자유의 참 모습을 인식하지는 못했을지라도, 이미 이런 자유를 경험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바울은 5:13 후반부에서 호소하기 시작한다. 몇몇 갈라디아인들은 자유로 죄의(육적인) 욕망을 탐닉하는 기회로 삼은 것 같다. "기회"(NASB에서는 "opportunity"로 KJV에서는 "occasion"으로 표기됨)라는 단어는 행동의 동기(base of operation)로 묘사하고 있다. 자유가 우리의 육적인 성품과 욕심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이끄는 동기로서 작용해서는 결코 안 된다.

5:14 바울은 레 19:18의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하라는 말씀을 인용하여 그의 호소를 강조하고 있다. 그는 온 율법이 이 하나의 계명을 지킴으로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적했다.

5:15 이제 바울은 경고의 말씀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 모든 갈라디아인들이 사랑을 실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여기에서 세 단어들은 치열하게 싸우는 야생동물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세 번째 단어가 최종의 완전한 파괴를 암시하는 반면에, 첫번의 두 단어, 무는 것과 삼키는 것은 계속적인 행동을 말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의 자유 (5:16-26)

5:16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적절한 표현은 단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 때에만 가능하다. 그런 삶은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자신을 내어놓을 때에만 현실화된다. 바울은 "성령을 쫓아 걸으라 (살라)" (필자의 역)고 지시했다. 이 삶은 그들이 열심히 노력하여 성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들 안에서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 하시는 데에 기반을 둔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육신의 욕망을 "채우거나" (KJV) "만족시키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5:17 바울은 육신과 성령의 적대관계를 인간들의 주도권 획득을 위해 계속하여 맹렬하고 치열하게 싸우는 전쟁으로 묘사했다. 육신과 성령은 서로 대적한다. 이 싸움의 결과는, 그리스도인이 자주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것과는 다르게 행동하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다 (롬 7:15).

5:18 바울은 5:17이 성도들이 선한 일을 할 수 없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지적했다. 성령께서 나보다 앞서 행하시며 길을 보이신다. 믿는 사람들은 그들이 이행할 수 없는 법(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규율 위주의 규정을 말한다) 아래 있는 것이 아니며,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을 통해 행하게 된다.

5:19 19절에서 21절까지는 육신에 의해 조장되는 일들을 묘사하고 있다. 이런 일들은 명백하며, 분명하며,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공개되어 있고, 확실히 볼 수 있다. 이 조항들은 육신의 일들 중 대표적인 것들을 열거한 것이지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바울은 처음에 성적인 음란함과 관련되어 있는 세 가지 육체의 일들을 살펴보았다: (1) 부적절한 성적 행위 모두를 지칭하는 "음행", (2) 다른 비정상적인 행위로 이끄는 육체의 행위를 의미하는 "더러움", (3) 절제되지 않는 육체의 행위인 "방탕"이다. KJV를 포함한 몇몇의 번역에서 발견되는 "간통"이라는 단어는 여기에서 적절하지 않으며, 이는 차라리 첫 번째의 "음행"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5:20. 육체의 일의 다음 범주는 이방 종교와 그에 자주 사용되는 마술에 관계되는 것이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以外의 다른 신을 숭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나무나 돌로 만든 신을 경배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온갖 종류의 신들 (돈, 명예)에 복종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마법" (헬라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약조제술"이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야기시키는데 사용되는 악한 마술을 말한다 (예를 들어, 점성술, 부적, 예언자).

다음의 육체의 여덟 가지 일들 (5:20의 7가지와 5:21의 1가지)은 가족, 교회, 지역, 사회에 불화를 야기시키는 육신의 행위와 태도에 관련되어 있다. 5:20절에서 "원수를 맷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리함과 이단"이 언급되는데, 이 모든 것은 사랑이 없는 마음에서 시작되며 결국은 적대적으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5:21. 5:20에서 열거된 육체의 일들과 동반되기 쉬운 이 "투기"는 다른 사람의 것을 갖고 싶어하는 악한 욕심을 말한다.

5:22. "이같은 것을 금지할" (성질에 대한 언급), "법이 없다" (율법에 국한된 것이 아닌 일반적인 법을 말한다). 이런 성격은 법의 요구에 완전히 부응한다. 이러한 것들이 나타날 때, 어느 규제도 필요없다. 성령의 열매는 율법주의의 도전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한다.

5:24. 그리스도는 육신이 새로운 협력에 의해 극복되어지는 새로운 관계를 소개한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를 (일회적으로 모든 것에 대해) 십자가에 못박았다, 말하자면, 구원받지 않은 삶의 방식을 완전히 부서뜨렸다. 옛 사람의 욕망과 욕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5:25.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NIV) 또는 "성령 안에서 행한다" (저자역)는 것은 (성령의) 뜻에 일치해서 행하다 또는 (성령과) 함께 한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동사는 현재 시제이므로 습관적 행동을 말한다.

5:26. 바울은 "자만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자만하게 되는 것은 겸손함 없이 개인의 이익과 영광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자신을 위해 영광을 구하는 것은 "격동하며" (도전이나 격렬한 반응으로 이어지는) "투기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교사를 위한 제안들

수업계획- 다양한 학습 활동들

삶과의 연결

1. 밝은 색깔로 "나는 자유다!"라고 쓰여진 큰 종이들을 준비하여 교실 내에 그것들을 붙여 놓는다.
2. 본문의 두 가지 예화 (도망친 죄수와 수표를 사취한 여자)를 대화 형식으로 재미있게 이야기하기 위하여 누가 적절할지를 묻는다.
3. 다음의 질문들을 토의하도록 한다: 두 예화 속에서 문제는 무엇인가? (역압, 책임에 대한 두려움, 혼란).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삶의 상황에 대응하는가? 예를 들어보게 한다.
4. 자유를 갖는 것이 무서운 일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본문으로 돌아간다. 명백하게 갈라디아인들은 몇몇 종류의 율법으로 돌아가야 할 필요를 느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의 자유에 강하고 단단히 설 것을 도전했다.

학습인도

5. 다음에 개요를 위해 문장을 만들어라. 먼저 벽에 맨 처음 종이를 붙이고 수업계획에서
지시될 때마다 다음 종이를 붙인다.

[출판관계자: 가능하면 규정된 박스 안에 넣으시오.]

그리스도인의 자유

굳게 설 것 (갈 5:1-6)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자유를 지킴 (5:13-15)

삶의 방식 (5:16-26)

[끝]

6. "굳게 설 것"이라는 타이틀 밑에 첫 번째 주제문을 벽에 붙인다. 5:1-6을 큰 소리로 읽도록 요청하라.
학생들에게 당신이 미리 칠판에 썼던 문장을 완성하도록 하라:

(1) 그리스도는 우리로 _____ 자유를 주셨으니 (자유케 하려고).

(2) _____를 메지 말라. (종의 명예)

(3) 오직 중요한 것은 _____ (사랑으로써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7. 한 사람이 5:7-12을 큰 소리로 읽도록 요청하라. 갈라디아의 그리스도인들과 그들을 윤법주의로 돌아가도록
이끄는 유대주의자들에 대한 바울의 태도를 묘사하는 단어나 문장을 주의 깊게 듣도록 학생들에게 요청하라.
토의사항: 당신은 믿음을 버리도록 또는 그리스도인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유혹된 적이 있습니까? 그때 당신은
어떻게 결정했으며 그렇게 하도록 영향을 준 것은 무엇입니까?

8. 두 번째 주제문인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자유로움"을 벽에 붙여라. 5:13-15를 사용하고 학습공과를
사용하여 바울이 갈라디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안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설명하여라.
바울이 예시한 교회 내에서의 언쟁을 교인들이 자유를 잘못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예로서 소개하라 (5:15, 26).

9. 24-25에 근거해서 바울의 훈계를 제시하므로 이 부분을 마무리한다. (제안: 당신의 삶을 통해 당신 안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증명하도록 하시오.)

수업계획-강의와 질문들

삶과의 연결

1. 학생들에게 그들이 어렸을 때 놀았던 모노폴리 게임을 상기시키도록 하라. 가장 좋은 재산은 어떤 것이었나?
가장 나빴던 장소는? (감옥) 어떻게 감옥에서 나왔는가? (적절한 카드를 뽑거나 값을 지불하고)

학습인도

2. 학습공과의 "굳세게 설 것"이라는 주제 아래 첫 문단에 나타난 설명을 사용하여 갈라디아인들의 자유를
구성하는 세 가지를 말하라 (윤법, 죄, 하나님의 분노로부터 자유로움).

3. 한 사람을 지정하여 5:3을 큰소리로 읽도록 시킨다. "윤법 전체"라고 바울이 말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보아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거절하는 것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하여, 학습공과의 "굳세게

설 것"이라는 주제 아래 두 번째 문단의 설명을 사용하라.

4. 5:4-6을 큰 소리로 읽어라. 바울이 말한 "은혜로부터 떨어짐"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학습공과와 인도자지침서에 있는 자료들을 사용하라. 여기서의 설명이 참가자 각자가 그 구절에 대해 이제까지 생각했던 것과 다른지를 질문하라. 다르다면 어떻게 생각했었는가?
5. 두 번째 주제문, "다른 사람에게 총노릇하기 위해 자유로와 짐"을 벽에 붙인다. 바울이 갈라디아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 제시한 세 가지 명령을 찾기 위해, 5:13-14를 조용히 읽도록 시킨다.
6. 세 번째 주제문, "그리스도인의 삶"을 벽에 붙인다. 칠판이나 종이에 두 개의 표제를 쓴다. 한 사람이 5:19-21을 크게 읽을 때, 바울이 육체의 성격을 특징짓는 긴 리스트를 주의 깊게 듣도록 요청한다. 그 구절들이 읽혀질 때, 참가자들이 칠판에 이것들을 쓰도록 한다. 다음에 5:22-23을 크게 소리내어 읽어라. 적절한 표제에 맞추어 성령의 증거를 칠판에 써라.

적용격려

7. 성령의 열매 각각을 짧게 설명하라. 학습공과 "성령의 열매," [보충]에 있는 자료와 인도자지침서에 있는 주석을 자료로 사용하라. 각자에게 작은 종이를 주고 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성령의 열매를 쓰도록 요청하라. 그들이 자신의 삶에서 왜 그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지 몇 분 동안 생각하도록 한다.

¹ 5조, "침례교 신앙과 메시지," 1963.

² 침례교의 신앙에 대해 더욱 자세히 살펴보려면, 침례교인에게 중요한 믿음: III을 보라 (베티 스트웨이 프레스, 2000). 인도자지침서에 있는 책 주문 양식을 이용할 수 있다.

제 6 과

건강한 교회로 가는 방법

핵심본문

갈 6:1-14

배경

갈 6장

주제

우리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의미를 진실로 믿음으로 인식할 때, 우리는 성도의 교제 안에서 살기를 추구하게 될 것이다.

탐구 질문

예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그의 몸으로 인정 하실까?

교육목표

성경 공부 참가자들이 어떻게 그들과 다른 사람간에 또는 교회 성도와의 관계에서 진실한 성도의 교제를 실행할 수 있는지를 알도록 도와준다.

성경주해

배경 이해

바울은 자유를 얻은 (갈 5:1-15) 성도의 삶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 지배된다 (5:16-26)는 것을 보여준다.
그는 사랑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가르친다

- (1) 사랑은 구원의 믿음을 갖은 사람의 특징이다 (5:6).
- (2) 사랑은 성도들이 서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5:13)
- (3) 성도들이 율법 전체를 이행하도록 한다.
- (4) 성령의 열매를 준다 (5:22-23)

6:1-10 에서 실제로 사랑이란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바울은 성도의 삶을 사랑의 삶으로 묘사했다. 설명된 행동들은 모두 사랑으로 가능한 것이다. 바울은 사랑으로 인한 행동들을 특별히 교회 생활에 한정시켜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행동들은 명백히 가정과 교회 내에서의 사랑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다음의 것을 충고한다:

- (1) 죄를 범한 자를 비판적 태도가 아닌 온유하며 사랑이 있는 태도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으라. (6:1)
- (2) 어려움을 참고 서로 짐을 지라 (6:2-5).
- (3) 모든 성도들의 의무를 완수하라 (6:6-8).
- (4) 하나님의 일에 대해 낙관적 태도를 가져라 (6:9)
- (5) 다른 사람들, 특히 성도들을 섬기라 (6:10).

마지막 구절들 (6:11-18)에서, 바울은 그의 메시지를 행위로 인한 구원이 아닌 은혜로 인한 구원으로 요약한다. 그는 또한 갈라디아인들에게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에 따라 더욱 무거운 짐을 그들 자신에게 지우지 말 것을 호소했다!

이 장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그의 사랑에 부응하는 행동을 하도록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준다. 이 사랑은 개인, 가정, 교회에 평화와 성장을 주기 위한 방법으로 나타난다. 성도의 삶은 사랑의 삶이다- 사랑으로 형성, 표현되며, 유지된다.

본문해석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사람들은 자만, 교만, 허영과 시기와 시샘을 이끄는 모든 죄의 덫을 피할 수 있다. 이 같은 상태는 냉담한 마음과 분쟁을 가져온다. 그러나 사랑이 삶에서 나타나면 이런 결과들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평화와 능력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 바울은 5:26에서, 특히 믿는 가정과 교회의 교제에 있어서 육체의 일과 사랑의 일을 대조시켰다. 5장과 6장은 그 주제가 서로 연결된다.

잘못을 범한 자를 바로잡음 (6:1)

성령님에 의해 사랑으로 사는 자의 첫 번째 행위는 잘못을 범한 자를 바로잡는 것과 관계한다.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을 "형제들"로 칭하였으므로, 그들은 영적으로 한 지체였거나 또는 가족이었을 것이다. "영적인(spiritual)" 사람은 우위의 리더권이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자를 말한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 죄에 "잡혔다.caught)"고 말했다. 이 단어는 갑작스러움의 요소를 포함하므로 KJV에서는 "갑자기 닥치다(overtaken)"로 번역하였다. 여기에서 바울은 계획적으로 죄를 범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실로 죄에 빠진 자를 말한다.

"죄(sin)" 또는 "과오(fault)" (KJV)란 단어는 정해진 과정을 따라 행하는 행동이라기보다는 타락 또는 일회적 행동의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바울은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말하지는 않았다. 이는 고착된 습관적 행동이 아니며, 일회적 행동을 의미하는 것 같다

"바로잡아 원래 상태로 회복시킨다 restore)"는 말은 찢어진 그물을 고치거나(마 4:21) 부러진 뼈를 맞추는 것을 묘사한다. 이를 위해서는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보통 이는 일회적 행동이 아닌 지속적인 과정을 내포한다.

더욱이, 바로 잡는 노력은 온유한 태도로 해야한다. 바로잡는 일은 신중하게 다루어야하며 온유한 태도로 해야한다.

짐을 서로 짐 (6:2-5)

6:2 사랑의 두 번째 표현은 가정이나 교회에서 다른 사람의 짐, 아픔, 어려움을 기꺼이 떠맡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다(carry)"는 계속적인 행동을 지칭한다. 바울은 그 단어를 "서로"라는 단어 앞에 놓음으로 그것을 강조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어려움을-연약함, 병, 슬픔, 고통, 심지어 잘못된 행동의 경험-겪을 때, 서로 도와줄

것을 가르쳤다.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로 인해 그 같은 고통스럽고 무거운 짐은 서로 나눔으로 인해 가벼워질 것이다.

6:3 "속이다"는 동사는 신약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 의미는 실제로 없는 것을 스스로 존재하는 것으로 설득하는 허상으로 꽉 차있는 마음을 말한다.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바로 잡을 수도 그들의 짐을 함께 질 수 도 없다.

6:4 믿는 사람들은 개개인의 능력과 자신들이 한 일들에 대한 근거 없는 허상을 가져서는 안되며 차라리 각자 그들의 행위를 살펴야 한다. "살피다(test)" (시험하다 또는 무게를 달다)라는 단어는 순수성을 확인하기 위해 금속을 조사하는 것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었다.

6:5. 5절과 2절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2절에서의 "짐(burden)"과 5절의 "짐(load)"는 다르기 때문이다. 2절에서의 짐은 무겁고 육중하여 사람을 주저앉게 하는 정도의 짐이며, 5절은 여행자의 장비, 곧 가벼운 짐을 지칭한다 (마 11:30에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것과 같은 단어다). 바울은 각자가 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함을 지적한다.

모든 의무를 이행함 (6:6-8)

6:6. 대부분 해석자들은 6:6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은 그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재정적으로 도와주어야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구절로 본다. 그러므로 바울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들이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가르쳤다 (고전 9:10-14).

6:7-8. 여기에서의 경고와 약속의 말씀을 6:6에서의 가르치는 사람들을 돋는 것과 연관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사역자들에 대한 이기적이고 냉담한 태도는 영적인 침체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된다. 반면에 그들에 대해 갖는 후한 마음과 자상한 마음은 충분히 보상받게 될 것이다.

이 구절들에서 가르치고 있는 영적인 씨를 심고 거두는 원리는 모든 것에 적용된다. 조금 씨를 심는 사람은 조금만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은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고 반면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은 영생을 거두리다" (NASB).

하나님의 일에 대해 낙관적일 것 (6:9-10)

바울은 갈라디아인들 (자기 자신도 포함하여)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수고한다면 적절한 시기에 거둘 것이라고 약속했다. "포기하다(give up)"은 또한 "낙심하다(lose heart)"로 번역될 수도 있다. 이는 안전하게 수확 때까지 버티어야만 하는 뜨거운 태양 아래 서 있는 수확하는 사람을 묘사한다. 수확하는 사람은 낙심하여 포기하지 않는다.

6:10. 바울이 "그러므로"라고 언급하므로 이 구절은 명백히 6:9로부터 계속 이어진다. "하는 한, 때문에(as)"는 "...하는 한(as long as)"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때문에(because)"의 의미가 더욱 강한 것 같다.

편지의 결말 (6:11-18)

6:11. 여기서 바울이 큰 글자를 썼다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그가 "글씨를 크게", 직접 손으로 썼다는 것을 말한다. 이런 단어들은 바울이 다른 사람을 시켜서 일한 것이라기보다 바울이 글을 직접 쓰기 시작했다는 것을 지칭하는 것 같다.

6:12-13. 갈라디아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좋게 보여지며, 유명해지고, 명성을 얻기를 바라는 사람이다. 갈라디아인들이 유대의 규례를 따라야한다고 주장하는 이 지도자들은 그들이 유대교의 일 파인 것처럼 보여 로마의 제재를 포함으로 휩박을 받지 않으려고 했다. 할례를 받았던 사람들도 윤법 전체를 지키지는 않았다. 그들은 단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 할례 받게 했는지를 자랑하고, 그로 인해 영광과 칭찬을 받기를 바랬다.

6:14.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선언했다. 그는 이 세상이 그에게는 죽은 것이고 그 또한 이 세상에 대해 그러하다고 했다. (나는 이 세상에 대해 죽은 자라).

6:15.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하지 않다. 단지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태어난 것)이 중요하다. 십자가로 인해 할례와 무할례 모두는 하나님의 선에 도달하는데 있어 종교적으로 무의미하며 중요하지도 않게 되었다.

교사를 위한 제안들

수업계획- 다양한 학습활동

삶과의 연결

- 종이를 모두에게 나눠준다. 다음의 과제를 제시한다:

당신은 새로운 동네로 이사를 와서 새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교회의 특성들을 5개 열거하십시오. 다만 후에는 두 세 명으로 구성된 그룹을 만드십시오. 그룹별로 서로 리스트를 비교하여 가장 중요한 특성 2가지를 뽑으십시오.

각 그룹이 발표할 시간을 준다. 한 사람에게 그 발표한 답을 칠판에 적도록 요청한다.

학습인도

- 서너 명으로 구성된 "토의 그룹들"을 만들어라. 당신이 질문하면 동시에 각 그룹은 서로 토의하도록 하라. 각 그룹은 의견을 서로 나누어야하지만 어떤 결론을 내릴 필요는 없다. 잘 6:1을 크게 읽어라. 다음의 질문들을 하고 각 질문 후에 2분씩 토의할 시간을 허용한다.

질문 1: 바울은 "죄에 사로 잡혀있는" 사람들을 훈계하기 위한 지침서를 교회에 주고 있다. 당신은 "죄에 사로 잡혀 있는"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질문 2: 바울은 "영적인 사람"이 그 사람을 바로 잡기 위해 교회 징계를 행할 수 있다고 말한다. 만약 당신이 "죄에 사로 잡혀 있는" 사람이라면, 교회에서 누가 그런 징계권을 행사하길 원하는가?

질문 3: 바울은 교회 징계는 그 잘못한 성도가 다시 완전히 원래의 교제권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되어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당신은 회복이 이뤄지기 전에 그에 대한 징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질문 4: 바울은 믿는 사람들 "또한 유혹에 빠질 수 있으므로" 스스로를 살펴보기를 권했다. 당신은 예전에 당신이 범했던 또는 범하도록 유혹되었던 죄를 범한 사람을 훈계할 수 있을까?

3. 한 사람이 갈 6:2-5를 큰 소리로 읽도록 한다: 그리스도인들이 점은 무엇인가? 교회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4. 갈 6:6과 학습공과에 "건강한 교회는 '설교자에게 대가를 지불한다'"는 부분을 사용하여, 설교자의 의무에 대해 바울의 생각은 무엇인지 짧게 장의하라. 당신 교회의 목사를 예로 들어 목사의 의무와 회중의 기대를 열거해도 좋다. 학습공과에 있는 월슨 대통령의 아버지 이야기를 함께 나눠라. 질문: 교회가 갈 6:6을 어떻게 잘 이행할 수 있을까?

적용격려

5. 1 단계에서 칠판에 썼던 답을 보고, 함께 제일 중요한 것으로부터 덜 중요한 순으로 등급을 매긴다.

질문하라: 만약 이것들이 교회에 대한 중요 특징이라면, 우리 교회의 등급은 어떠한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자유롭게 토의하도록 한다.

6. 교회는 실제로 사람들이 서로 관계를 가지는 작은 모임들 (주일 학교!)로 구성됨을 언급하라. 질문하라: 우리 반은 이 리스트에 따르면 어떤 등급에 해당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더 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수업계획- 강의와 질문들

삶과의 연결

1. 당신 교회에 관한 포스터를 만들어라, 그것은 건물 그림, 주보, 교회 신문, 또는 교회를 대표하는 기사들을 포함할 수 있다. 그것을 벽에 전시하라.

학습인도

2.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사람과 같다. 정규적으로 검진 받는 것과 매일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것이 필요하다 갈 6장의 바울의 지침서를 사용하여 점검 용지를 만들 것을 제안하라.

3. 갈 6:1을 크게 읽어라. 개요에서 "A"를 가려라. 바울이 교회 징계권을 행사하기 위해 제시한 4가지 지침에 대한 짧은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 학습공과에 있는 "건강한 교회는 바른 길로 돌아킨다" 부분을 이용하라.

4. 한 사람이 6:2를 큰 소리로 읽도록 하라. 개요에서 "B"를 가려라. "점" (무거운 점, 문제들)이란 단어를 정의하고, 교인들이 당면한 문제들을 예로 들어라. 질문하라: 이러한 문제들은 믿지 않은 사람들의 문제와

다른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다르지 않다). 이로부터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는가?(모든 사람은 문제와 어려움을 경험한다.)

5. 학습공과에 "건강한 교회는 서로의 짐을 지게 한다"에서 남편이나 아내 없이 혼자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을 돕기 위해, 기부금을 낸 교인에 관한 스토리를 함께 나눈다. 우리는 자주 우리가 그 같은 처지에 있었기에 그런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6. 한 사람이 6:4-5를 크게 읽도록 하라. 바울이 이 구절들에서 의미하는 것을 오늘날의 말로 다시 고쳐 말하도록 참석자들에게 요청하라 (당신 자신의 삶에 대해 책임을 져라).

제 7 과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 분인가

핵심본문

에베소서 1:1-14

배경

에베소서 1장

주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 가족들을 포함하여, 그들이 누구이든지 간에 당신을 포함하여 - 함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가져오며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탐구 질문

인생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교육 목표

하나님의 전체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목적이 나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해한다.

성경주해

배경 이해

에베소에 위대한 일이 일어났다. 사도행전 19장은 그 이야기를 말해준다 -- 에베소의 많은 지역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크게 일고 있다는 극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마을의 폭동이 마침내 가라앉았다는 것. 마을에 의해 증거되고 바울과 함께 지냈던 동료들은 에베소 지역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에베소는 로마 근처에 있는 아시아의 주된 항구도시이자 활발한 상업이 성행되던 도시였다. 그 도시는 또한 매우 종교적인 도시였다. 유대교와 기독교뿐만 아니라 아테미 여신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아테미 여신을 모시는 가장 커다란 성전이 그곳에 있었는데 이곳은 오늘날 칠대 불가사의 중의 한 유적지로 남아있다.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중요성으로 강조한다. 이 서신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은 말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그의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 하나님은 그의 교회와 그의 백성을 안에서, 통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본문해석

부름의 이야기 (1:1-2)

1:1. 우리는 편지의 끝 부분에 개인적인 혹은 사업적인 문서들에 대한 사인을 한다. 헬라어 서신 양식은 시작할

때 사인을 한다. 예배소서는 이 당시의 일반 서신의 양식을 -- 발신자, 수신자, 인사말, 내용, 마치는 말 -- 따른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을 기독교화 시켜서 더했다. 예를 들면, 발신자가 단지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인 것이다.

1:2. 인사말 "은혜"와 "평강"은 바울이 편지를 쓸 때 함께 썼던 형식이다. 바울이 "은혜"로 말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를 우리가 만난 것으로써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롭게 대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을만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분께 가장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평강"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의 평강을 의미한다.

구속의 이야기 (1:3-10)

1:3. 바울의 기쁜 표현은 "찬송하리로다 (blessed)"라는 단어에서 나타난다. "찬송하리로다"라는 아마도 행복한 상태를 표현하는 것으로써는 가장 적합한 것으로써 생명의 충만함과 복이 함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그의 충만함과 복을 우리와 함께 나누신다. 그분은 아무 것도 혼자 가지시지 않으시고 모든 영적인 축복들을 우리와 함께 나누신다. 우리는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알게되고 경험하게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1:3)라는 문구는 바울이 가장 즐겨쓰는 표현이다. 그는 이 표현을 어떤 경우에는 신비스런 문장으로 사용했다. 우리는 아마도 이 것을 공기의 비유를 들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주변의 공기 속에서 있고 또한 그 공기는 우리 안에 있다. 그리스도의 진리로 그와 마찬가지이다. 그는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그 안에 있다.

1:4-6.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바울이 전체적인 한 집단으로서의 교회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는 개인적인 구원을 통해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1:4) 그리고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1:5)라는 말들은 모두 교회에 관한 말들이다. 우리는 이 용어를 개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는 택하셔서 누구는 저주하신다고 이해한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바로 구속자로써 뛰어들지 않으셨다. 구속은 항상 하나님의 본성의 일부이요, 속성의 일부이었다 - 심지어 "창세전"부터 (1:4). 인간이 죄를 지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사역은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건지시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구원의 축복을 위해 교회를 통해서 하기로 결정하시고 운명지으신 것이었다. 바울은 여기서 연합된 개인들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지 각각의 개인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1:7-8.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다" (1:7). 구속을 받았다는 것은 소외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과 올바른 관계를 되찾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스라엘이 애굽 (이집트)에서 노예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속하셔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오게 하셨다. 바울에게 있어서 죄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어떤 존재나 삶의 방식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피" (1:7)를 통해서 구속함을 얻었다. 고대인들은 만일 많은 피가 사람으로부터 흘러나가게 되면 죽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들은 피는 생명을 수반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사람이 피를 흘린다는 것은 생명을 흘린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구속이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그가 스스로 주신 생명을 통해 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죄의 지배로부터 구속 받는 것은 "그의 은혜의 풍성함" (1:7)이 필요하다. "은혜," 즉 우리가 감히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할 때 주시는 "은혜"는 우리의 죄들의 사슬을 끊기에 충분하다.

1:9-10. 우리의 구속은 하나님의 "경륜 (plan)" (1:10)의 결과로서 온 것이었다. 하나님의 시작하심과 행하심으로 인해 그 경륜은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경륜을 이루시는 방법은 "때가 차게" (1:10)하는 것이었다. 이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와 구속자로써 오게 하시는 것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1:9).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 분인지 안다. 그분은 우리를 구속하기를 원하신다. 이 "비밀" (1:9)은 알려진 비밀이다. 선택된 소수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선포된 것이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 (1:10)은 구속의 결과이다. 죄는 우리의 모든 관계들을 --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 우리자신들 가운데서 -- 깨뜨리고 흩으려 놓는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속은 이러한 부조화를 제거하고 우리의 깨어지고 흩어진 관계들을 다시 하나로 모아 조화를 이루게 한다. 그 조화는 그리스도 안에 존재한다.

예정 이야기 (1:11-14)

1:11.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속적인 (구원하는) 행위는 즉각적인 결과들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1:11). 그 기업은 하나님의 완수된 실재라는 것을 주목하라. 비록 그 유업의 온전한 실현은 미래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말이다. 그 유업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 그리고 우리가 있게 될 곳과의 온전한 관계이다. 우리는 보통 이러한 모든 것을 천국이라고 말한다.

1:12-14. 1:12절의 "우리"는 그리스도를 구속자로서 영접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킨다. 1:13절의 "너희도"는 그리스도를 구속자로서 영접했던 이방인들을 가리킨다. 물론 그리스도를 구속자로서 영접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교회이다. 이방인들과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그러므로, 교회는 1:10절이 확인하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들을 함께 모으고 연합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증거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의 살아있는 증거이고 하나님의 역사의 살아있는 예인 것이다.

우리의 유업의 충만함이 미래에 있는 반면 우리는 지금 그 유업의 "보증" (1:14)을 가지고 있다. "성령의 인치심" (1:13)은 바로 그 보증이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인은 소유권을 나타낸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혼존 안에 있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혼존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 유업을 경험한다.

교사를 위한 제안들

수업계획 - 다양한 학습활동

삶과의 연결

1. 학습목표를 소개하기 위해 질문하라. 만일 우리가 스무고개 성경인물 알아 맞추기를 하면 당신은 누구를 당신의 짹으로 선택할 것인가? (당신의 반원들이 잘 알고 재밌어 하는 게임을 언급하도록 하라) 당신이 그 게임의 목표를 알 때 짹을 고르는 일이 더욱 쉬울 것이라는 말로 결론을 지어라. 이번 성경공부는 인생의 "게임의 목표"를 아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것을 언급하라.

학습인도

2. 반원 중 한 사람이 1:3-6절을 소리내서 읽도록 하고 다른 반원들은 그들의 성경을 속으로 읽으며 따라가도록 하라. 벽에 걸려 있는 마커보드나 종이 위에 우리가 축복을 주거나 받는 방식을 반원들이 나와서 쓰도록 하라 (눈 마주침, 미소, 관심, 접촉, 시간, 등). 1:3절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 는 것을 상기시킨다. 반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축복을 받는 방식들을 질문하라 (말씀이 실현된다, 우리의 영혼이 잘됨을 찬양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현현에 대한 특별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등등).

3. 1:4-8절을 소리내서 읽고, 반원들은 그 문장에서 핵심적인 단어들을 주목할 수 있도록 하라. 반원들이 생각하는 핵심적인 단어가 무엇인지 질문하라. 반원들의 대답과 다음의 핵심적인 단어들과 비교하고, 그 단어들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라.

- “택했다 (chose)” -- 껴내거나 혹은 선택하는 행위
- “거룩 (holy)” -- 따로 떼어 놓여 있는 상태
- “흠 없음 (blameless)” -- 도덕적으로 완벽함
- “예정 (predestinated)” -- 미리 결정함
- “양자됨 (adopted)” -- 그들의 새 부모의 모든 재산들에 대한 상속자가 됨
- “구속 (redemption)” -- 자유롭게 놓이게 됨; 몸값을 치르고 풀리게 됨

4. 미스테리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지 반원들에게 질문하라. 1:9-10절을 소리내서 읽어라. 하나님이나 누구이신지에 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라는 것을 지적하라. 하지만 그러한 신비들 중 어떤 것들은 우리에게 드러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언급하라. 각 사람에게 메모 종이를 나누어 준 뒤 1:9-10절 말씀을 본인의 말로 다시 써보도록 하라. 둘이나 셋씩 짹을 이루어 이 활동을 해도 좋다.

5. 각 반원들의 리포트를 받아라. 그리고 나서 왜 하나님의 목적이 매우 중요한지 설명하라. 1:11-14절을 소리내서 읽도록 하라. 이 구절들은 우리가 택하셨을 얻었고 예정되었고, 구속되었고, 양자로 되었고, 흠 없이 되었고, 거룩하게 된 것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된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라.

수업계획 - 강의와 질문들

삶과의 연결

1. 당신 교회의 세 가지 목표가 무엇인지 파악해보도록 요청함으로써 수업 목표를 소개하라. 이번 수업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것을 제시하라.

학습인도

2. 에베소서 1:1-2절을 소리내서 읽어라. 반원들이 에베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것이 있으면 말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라. 학습공과를 참조하고 특별히 인도자 지침서에서 나오는 에베소 지역에 대한 설명을 짤막하게 하라. 지도를 가져와서 에베소의 위치를 가리켜라 (오늘날 터기 서부)
3. 다른 반원들이 속으로 읽는 동안 한 사람이 대표해서 1:3-6절을 소리내서 읽게 하라.
4.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일은 성서시대에 자녀들에게 있어서 인생을 바꾸는 커다란 사건이었다는 것을 지적하라. 다음 질문들을 사용하여 토론을 유도하라:
- 오늘날의 자녀들은 어떤 식으로 그들의 부모에게 축복을 받는가?
 - 청소년들은 어떤 식으로 그들의 친구에게 축복을 받는가?
 - 성인들은 어떤 식으로 그들의 동료로부터 축복을 받는가?
 -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축복을 받는가? (말씀이 실현된다, 우리의 영혼이 잘됨을 찬양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현현에 대한 특별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등등).
5. 학습공과에 있는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 부분을 요약하여 1:4-8절 말씀을 설명하라. 지도자 지침서에 나오는 성경주제를 활용하여 부수적인 설명을 더하도록 하라. 다음 핵심 단어들이 충분히 이해되었는지 확인하도록 하라.
- "택했다 (chose)" -- 꺼내거나 혹은 선택하는 행위
 - "거룩 (holy)" -- 따로 떼어 놓여 있는 상태
 - "흠 없음 (blameless)" -- 도덕적으로 완벽함
 - "예정 (predestinated)" -- 미리 결정함
 - "양자됨 (adopted)" -- 그들의 새 부모의 모든 재산들에 대한 상속자가 됨
 - "구속 (redemption)" -- 자유롭게 놓이게 됨; 몸값을 치르고 풀리게 됨
6. 질문: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아낌없이 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창조도 되기 전에 우리를 양자 삼으시는 것을 택하셨는가? 1:9-10절을 소리내서 읽도록 하라. 하나님은 누구신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한 많은 부분들이 여전히 신비로 남아있다는 것을 언급하라. 하지만 그러한 신비들 중 어떤 것들은 우리에게 드러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언급하라.
7. 왜 하나님의 이러한 비밀의 드러남이 매우 중요한 것인지 설명하는 것으로써 결론을 맺어라.
- ### 적용격려
8. 오늘 성경을 통해 배운 말씀들의 진리라 반원들 각자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생각해보도록 하라. 만일 우리의 삶을 네 개의 다른 부분으로 나눈다면 -- 가정, 일, 교회, 그리고 사회활동 -- 이러한 각 부분들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예: 아내, 혹은 남편, 아이들, 재정, 관계, 노동 윤리, 위원회, 출석, 십일조, 사냥, 낚시, 이웃들, 등). 반원들에게 네 개의 부분 중 하나를 고르게 한 뒤 질문하라: 만일 그 부분에 관계된 모든 구성들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하심에 놓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이러한 변화가 당신에게 혹은 어느 사람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 줄까? 어떻게?
9. 반원이 이번 주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로 수업을 마치라.

제 8 과

구원받고 새 생명이 되다!

핵심본문

에베소서 2:1-16

배경

에베소서 2장

주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

탐구 질문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구원이 가져다 준 차이점들은 무엇인가?

교육 목표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으며 구원이 가져다 준 차이점들이 무엇인지 묘사할 수 있다.

성경주해

배경 이해

우리는 이번 수업을 통해서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우리를 싫어하지 않으신다는 것에 대하여 이해하게 될 것이다. 진실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위대한 사랑과 용납을 가지고 행동하신다. 그는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그의 위대한 일에 동참하게 하신다.

에베소서 2장에서 하나님은 초대와 부르심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해야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역시 매우 중요하다. 그 대답은 아무 것도 없다 이다! 아무 것도, 다시 말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밖에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아무런 공로도 없고, 공로를 세울 수도 없다.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다. 복음 이외의 다른 종교의 표현으로는 공로는 신들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수단 혹은 신들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이다. 만일 그 신들이 만족하지 않으면 그 승배자는 선행으로 그 신들로부터 적대감을 해소할 때까지 적대적인 관계 속에 놓여있어야 한다.

본문해석

죽음의 존재 (2:1-3)

바울은 죽음의 이미지를 떠올리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수신자들에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 (2:1)고

쳤다. 비록 그들은 살아 있었지만, 그들은 사실 죽음 가운데 있었다.

여기서 "너희"란 이방인들을 가리킨다. 2:3절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쓰면서 유대인들도 이전에는 죽었었다고 똑같은 범주 안에 집어넣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2:3). 즉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이전에 죽었던 자들이다.

바울은 "죽음"의 존재를 "허물과 죄" (2:1)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로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2:2) 것으로서 특정지었다. "허물"이란 옳은 것으로 인정되는 것에 따라 사는 것을 실패한 삶을 가리킨다. "죄"란 과녁을 빚나간 삶,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신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데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실패한 삶을 가리킨다.

여기에서 "세상"이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 하나님에 배제된 상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적 생명이 없는 상태를 일컫는다.

죽음의 존재는 "공중 권세 잡은 자" (2:2)에 지배되는 것이다. 마귀에 대한 이러한 묘사를 통해 바울은 땅과 천국 사이에 있는 공중이 마귀에 의해 통치되어지는 순결하지 못한 것으로, 이 세상에 대한 견해를 언급하는 것이다. 공중 권세 잡은 자에 의해 통치되는 것은 마귀에 의해 결정되는 존재 속에서 사는 것을 의미했다. 누구든지 그렇게 하는 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것이며" "진노의 자녀"인 것이다.

여기에서 이러한 모든 용어는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을 때, 우리가 주와 구속자 되신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았을 때 소속된 존재를 묘사하는 것이다. 바울이 여기에서 사용한 "육체" (2:3)은 몸의 감각을 가지고 있는 육체가 아니다. 우리의 본성이 죄의 지배를 받는 상태를 일컫는 말이다.

살아있는 (2:4-7)

바울은 이제 기쁜 소식, 복음으로 화제를 바꾼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살리심" (2:5)을 받았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까? 2:1-3절에서 죽음이 존재하는 상태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모두 스스로 그 죽음의 존재를 선택한 결과이다. 하나님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분이 아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죽음의 존재를 선택한 그들을 살리시려고 하실까?

그는 우리를 "놀라운 사랑" (2:4)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것이 이유이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 나누어지고 주어지는 생명인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선택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이유가 필요없다. 그는 그렇게 하시기로 선택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와 함께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살게된다; 구원받게 되는 것이다 (2:5).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가 은혜로 (2:5) 구원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은혜는 어떠한 숨은 조건도 불지 않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통하여, 그리고 그때 이후 구원받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 (2:7)을 보여주는 것이다.

선물 (2:8-10)

신약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말씀 중의 하나는 에베소서 2:8-10절이다. 이 말씀의 실재는 무엇인가? 그것은 죽음의 상태에 있던 우리를 구원으로, 해방으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심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은 값 없는 선물로서 오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에 대한 공로도 없고 그것을 얻지도 못한다. 우리는 단지 그 선물을 받는, 혹은 반응하는 것이다. 우리가 받고 반응하는 일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2:8). "말미암아 (through)"는 헬라어로 디아 (*dia*)이다. 이것은 에이전시나 혹은 수단을 가리킨다. 구원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 안에서 작용하는 것이다.

어디에 믿음의 궁극적인 행사가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서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선물을 놓으신다. 우리는 도저히 받을 가치도 없고, 우리의 공로로 받을 수도 없지만 이 선물을,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에 대한 관계를 받거나 혹은 "믿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한 어떤 것에 대하여 "아무 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2:9). 교만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버려야 할 것이다.

세 사람(2:11-16)

바울은 이 구절에서 성전의 이미지를 생각하고 있다. 성전은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의 뜰을 가지고 있었다. 막힌담" (2:14)이라고 불린 담은 이 두 뜰, 혹은 영역 사이에 세워져 있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의 뜰에 들어갈 수 없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간이 존재했던 것이다, 이방인과 유대인.

그 두 종류의 사람들 사이를 나눈 분리의 이미지가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다. 이스라엘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육체적인 표시, 즉 "할례"가 있었다.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었다 (2:11). 한 쪽에는 "이스라엘의 공통적인 복"을 받은 자들이 서 있었고 다른 한 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었던 계약에 대해 "이방인"이고 "외인"인 자들이 서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사람들을 서로 나뉠 의도가 없었다. 하나님은 다른 민족들을 포용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들에 대해 증인이, 종이 되기를 원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대적하는 마음이나 분리시키려는 마음이 없으셨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명백하게 드러난다. 우리가 그를 만나는 곳은 이제 물리적 성전이 아니라 한 인격이다 -- 의식도 아니고, 교리도 아니고, 그밖의 어는 것도 아닌 한 인격 - 즉 그리스도인 것이다.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환영되고 서로 만나는 것이 환영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환영받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실존에서 보여진다. 이 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기억하는가? 죽음의 존재가 그리스도와 떨어진 연유에서였다는 토론에서부터 시작하였다. 죽음의 존재의 표식들은 "분리"와 "원수 되는 것 (적대감)" (2:14-16)이다. 그리스도는 이것을 그의 십자가의 죽음에 놓으셨다. 사람들과 원수 맺는 것은 자기 보다 열등하다든지 아니면 어떤 중요한 것에 대해 그들이 위협적인 존재임을 느낄 때 오는 것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십자가 위에서 함께 죽은 것이다.

교사를 위한 제안들

수업계획 - 다양한 학습활동

삶과의 연결

1. "이전"과 "이후"라는 단어를 마커보드나 큰 종이에 써라. 반원들에게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 아주 중요했던 사건을 기억하게 하고 그 이전과 이후의 상태가 어떠하였는지에 대해서 말할 수 있도록 하라.
2. 이번 수업은 그리스도인 생명의 국면의 전과 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언급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제시를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상기시키도록 하라.

학습인도

3. 에베소서 2:1-3절을 소리내서 읽도록 하라. 이 구절들은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라. 당신 자신이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와 이후의 상태를 간증하도록 하라. 반원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의 영적인 상태를 글로 옮길 수 있도록 하라. 서로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지라.
4. 반원 중 한 사람이 2:4-10절 말씀을 소리내서 읽을 수 있도록 하라. 커다란 종이를 벽에 붙여서 "지금"이라고 크게 글씨를 써라. 성경이 다 읽어졌으면, 다음의 핵심적인 구절을 그 종이에 써라.
 -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 "구원을 얻었다"
 -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다"
 -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 "은혜"
 -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5.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해 반원들의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라.
 - 중동 지역에 평화가 존재할 수 있을까?
 - 결혼의 관계가 진정으로 둘을 하나로 만들 수 있을까?
 - 진짜 적이 친구로 되는 것을 본적이 있는가?

이 세상에서 평화를 갖고, 조화를 이루고 하나님을 이룬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적대적인 막힌 담은 인간을 나누는 어떤 담들보다 훨씬 더 높고 단단하다는 것을 지적하라.

수업을 마치기 전에 학습공과 보충에 나오는 "막힌 담"에 대한 설명을 반원 중 한 명이 소리내서 읽을 수 있도록 하라.

수업계획 - 강의와 질문들

학습인도

1. 베소서 2:1-3절을 소리내서 읽도록 하라. 이 구절들은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라. 당신 자신이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와 이후의 상태를 간증하도록 하라. 반원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의 영적인 상태를 글로 옮길 수 있도록 하라. 서로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지라.
2. 지난 주 배웠던 강의 (창세 전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속하시고, 용서하시고 그의 은혜로 우리에게 후회 시시기로 정하셨다는 것)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준비하라. 바로 그 선물 때문에 우리는 죽음 이후의 생명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하라.
3. 한 사람이 2:4-10절 말씀을 읽게하라. 반원들이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우리의 상태를 묘사하는 말씀들에 밀줄을 칠 수 있도록 하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구원을 얻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은혜”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지라.
4. 2:8-10절을 읽어라. 이 구절들은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요약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라 --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의 반응으로. 인도자 지침서에 나오는 성경주해를 활용하여 설명하도록 하라.

적용격려

5. 당신이 "영적으로 죽어있던 상태" -- 당신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 당신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과 삶을 어떻게 바꾸셨는지 간단하게 나누라. 다른 사람들의 비슷한 간증들을 서로 나누도록 하라. 우리를 구원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라. 기도가 끝난 후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개인 구원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라.

제 9 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핵심본문

에베소서 3:14-21

배경

에베소서 3장

주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안에 있는 믿음이 가져다주는 힘과, 완성과, 사랑과 친근하고 풍부한 관계를 경험하기를 원하신다.

탐구 질문

하나님은 나로부터 무엇을 원하는가?

교육 목표

바울의 기도로 당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한 당신의 열망을 평가해본다.

성경주해

배경 이해

에베소서 3장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이방인들의 선교에 대한 바울의 확신 (3:1-3), 그의 수신자들을 위한 기도 (3:14-19), 그리고 송영 (3:20-21).

바울과 그의 동역 선교사들은 위대한 일들을 했다. 그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심지어는 매우 적대적인 곳에서도 복음을 선포했다 (고후 1:8-11절을 보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사역을 축복하셨다. 그들은 회당에서 논쟁하였고, 성령께서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여 그들을 반대하는 자들과 도전하는 자들에게 대꾸할 수 없는 대답들을 하게 해주셨다 (행 13-14장). 그들은 가장 힘든 지역들에서, 예를 들면 고린도 지역에서도 놀랄만한 지속력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해 나갔다. 그들은 고난을 받았고 승리의 시간들이 조금씩 조금씩 솟아오르는 것을 목도할 수 있었다.

바울과 그 동역자들은 이 위대한 일들을 이룬 것들이 그들 자신에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바쁘더라도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바울의 편지를 생각해보라. 그는 보통 편지 서두에서 그가 즐겨쓰던 인사말 ("은혜" 와 "평강")을 한 다음, 자주 기도와 감사의 내용들을 썼다 (예를 들면 로마서 1:8-15, 고린도전서 1:4-9; 빌립보서 1:3-11). 바울은 자주 교회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했었다.

본문해석

바울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갔다.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가 실족하지 않도록 기도하셨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눅 22:32). 그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 (마 19:13). 그는 우리를 어떤 형태로든 펑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강조하셨다 (마 5:44).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한 "대제사장적 기도"가 있다 (요 17장). 그리고 물론 예수님의 중보기도에 대한 다른 많은 예들이 있다

기도하는 이유 (3:14-15)

만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기도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만일 하나님은 계시는데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다면 기도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선을 위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지 않는다면 기도하는 것은 쓸데없는 행습이다.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선을 위하여 역사 하신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다. 그래서 교회들에 대한 그의 사역에 있어서 많은 시간들을 기도로 할애했다. 그에게 기도는 가슴에 고동치는 행습이었다.

"이러하므로 (for this reason)" (3:14), 바울은 기도했다. 어떤 주석가들은 이 이유 (this reason)를 2:18절인 유대인과 이방인이 "아버지"에게 "나아감"을 얻었다는 것과 연관지어서 말한다. 바울은 물론 그의 구원의 경험에 대해, 부르심에 대해, 그의 수신자들에 대한 사역에 대해 기도했다. 그렇다면 "이 이유는" 에베소서 전에 그가 썼던 모든 것들에 적용될 수 있다.

그는 "아버지"께 기도했다. "무릎 끓고" (3:15)라는 표현은 그가 열심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을 가리킨다. "각 족속"이란 그들이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을 때 가지고 있었던 가족관계를 가리킨다. 사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관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3:15).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간구를 가지고 당신께 나아오는 자들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우리도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속 사람의 강건을 위한 기도 (3:16)

"속 사람"이란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하는 하나의 인격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다. 혹은 다른 견지에서 보면 "속 사람"이란 단지 인간, 본질적인 인간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속 사람의 강건이 개인에게 적용될 수 있기도 하지만, 여기서 바울은 교회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너희"와 "너희"는 여기서 복수형태이다 (3:16).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이고, 인격이다. 바울은 개인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교회의 "속 사람"이 강건하기를 기도했다. 바울은 개인적인 삶과 교회, 혹은 교회의 삶을 결코 분리시키는 일이 없었다. 속 사람의 강건은 교회의 생명 안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우리가 교회의 모임으로부터 육체적으로 떨어져 홀로 있을 때도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인 것이다 (2:21-22). 그리스도 몸의 속 사람의 강건은 또한 우리의 강건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속 사람을 강건케 하신다 (3:16).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 자체이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역사 (history)이다. 예를 들면 그는 창조자이다. 어떤 능력과 지혜가 이러한 우주가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할 것인가 생각해보라.

그는 구속자이시다. 이스라엘의 노예생활로부터의 구속,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모든 구속적 (구원하시는) 행위들을 생각해보라. 하나님은 지탱하시는 분이다. 세상은 하나님 없이 유지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비와 돌보심을 시로 묘사한 시편 121:7-8절을 보라

시 121:7 여호와께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시 121:8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 영광은 우리가 수세기를 가로지르는 그의 계시를 고려할 때 더욱 증폭된다. 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그 영광의 궁극적인 표현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부으셨다.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을 위한 간구 (3:17)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3:17) 계시게 하옵시고 라고 간구한 것은 결과적으로 속 사람이 강건케 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3:16). 우리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를 갖게 되는 것은 혹은 속 사람이 강건케 되는 것은 우리를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 (3:17)지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하는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 일은 개인을 통하여 그리고 교회의 연합된 믿음을 통하여 완수된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리고 함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열어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다.

사랑에 대한 간구 (3:18-19)

"안다(comprehend, NIV)" (1:18-19)는 것은 이해한다 (understand, NIV) 는 것이다. 3:19절의 "깨달아 (know)"를 계속해서 말하는 장조이다. 사라옹 ━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종합적인 것이다. 그것은 "모든 성도" (3:18)을 포함하는 것이다. 사랑은 생명을 주는 것이다. 사랑은 비록 그런 비슷한 경험이 따라오기도 하지만 감정적 혹은 호르몬적 반응이 아니다. 사랑의 차원을 -- 넓이, 길이, 높이, 깊이 --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주신 범위를 안다는 것이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사랑의 차원들을 보게 된다.

하나님을 찬양 (3:20-21)

"역사하시는 능력" (3:20)은 3:16-21절의 능력에 대한 주제의 반향이다. 능력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특별하게 나타내는 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안다. 그는 구속하시고, 그는 구원하시고, 그는 용서하시고, 그는 교회를 세우신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의 명성이다. 예배의 행위로서 그분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그가 누구신지, 그가 하신일이 무엇인지 표현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에 그의 영광을 세우신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영광의 완벽한 표현이고, 교회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가시적인 몸인 것이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다. 그 영광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한다 아멘" (3:21).

교사를 위한 제안들

수업계획 - 다양한 학습활동

학습인도

1. 학습공과에 있는 "이러하므로"의 내용을 이용하여 이번 수업의 개요를 제시하라. 7과와 8과를 다시 한번 돌아가 주된 사상들을 복습해보는 기회를 가져라.
2.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아는 것은 기도를 실제적으로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지적하라. 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지만, 각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은 우리가 개인의 어떤 특별한 필요들이 무엇인지 알 때 더욱 개인적인 수준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질문; 에베소 교인들의 당면한 특별한 필요들은 무엇이었는가? (우상숭배와 관련된 일, 우상을 파는 상인들을 물리치는 일, 회중 안에서의 서로 다른 점들) 그러한 필요들을 칠판에 기록하라.
3. 이러한 필요들을 기억하면서 에베소서 3:14-17절을 반원 중 한 사람이 소리내서 읽도록 하라. 에베소 교인들의 필요를 기록한 옆에 다음의 단어들을 써라: 영광의 풍성함, 아버지, 능력, 성령, 그리스도. 이러한 단어들이 응답되어지고 필요들이 채워지는 기도에 대해 어떤 느낌을 주는가?
4. 커다란 포스터 종이를 벽에 붙이고 바울이 하나님께 특별히 구한 내용들을 기록하라. 그리고 질문;
 - 바울이 3:14-17a에서 간구하고 있는 두 가지는 무엇인가?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거하기를 간구함)
 - 에베소 교인들의 필요들을 다시 돌아볼 때, 이것들 중 어느 것이 서로 맞을까?
5. 3:17b-19을 살펴보기 위하여 간략한 강의를 준비하라. 학습공과에 나오는 "알 수 있는 능력"에 발견되어지는 정보를 활용하라. 때론 사람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간파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지적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얼마나 더 어렵겠는가!

수업계획 - 강의와 질문들

삶과의 연결

1.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함으로써 수업을 시작하라: 당신은 무엇을 항상 기록하는 사람인가? 우리가 기록하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는가? (생필품, 할 일들, 비상 전화번호들, 비밀번호, 등)
2. 바울이 언제 기도했는지, 그리고 그는 자주 기도의 제목들을 기록하고 했었을 것이라는 언급을 함으로써 학습인도로 들어가라.

학습인도

3. 학습공과 "이러하므로"에서 발견되어지는 정보를 제시함으로써 개요를 제공하라.
4. 한 사람이 애베소서 3:14-19절을 소리내서 읽도록 하라. 반원들에게 이 구절들 속에서 바울이 간구했던 내용들이 무엇이었는지 주목하라고 제시하라. 다음 아웃라인을 마커보드나 칠판에 기록하고 인도자 지침서의 성경주제에 나오는 정보들을 활용하여 설명하라.

- 기도할 이유 (3:14-15)

- "이러하므로"
 - "나의 무릎을 꿇고"
 - "각 족속으로부터"

- 속 사람을 위한 간구(3:16)

- "속 사람"
 - "너희" (복수)
 - "그의 영을 통한 능력"

- 그리스도의 내주함을 간구 (3:17)

- "너희의 마음에"
 - "뿌리를 내리고"
 - "굳게 서서"

- 사랑에 대한 간구 (3:18-19)

- "안다"
 - "능히 안다"
 -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채우다"
 - "넓이, 길이, 높이, 깊이"

적용격려

5. 종이를 준비해서 반원들의 기도제목들을 기록하라. 그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함으로써 수업을 마치라.

제 10 과

교회 안에서 당신의 사역을 찾는 방법

핵심본문

에베소서 4:1-16

배경

에베소서 4:1-16

주제

하나님은 우리가 부름 받은 대로 사역에 임하며,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은사를 사용함으로써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한 삶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

탐구 질문

당신은 하늘이 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교육목표

이과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이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한다는 것을 아는 방법과 길을 참석자들이 찾을 수 도와준다.

성경주해

배경 이해

에베소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은 마치 음악 악기들이 교향곡을 연주하는 것 같이 살아있다. 독자는 진리가 서서히 점점 세게 세워지더니 갑자기 마지막으로 치닫는 움직임을 보며 느낀다. 에베소서 3장 마지막과 함께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이 명작의 악장을 마쳤습니다. 다시 한번 웅장한 영광송을 끝으로 마지막 맷는 부분을 보십시오(3:20-21).

첫 번째 악장인 에베소서 1-3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한 기본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서신은 진리에서 진리로 강한 박자와 함께 두 번째 주제로 옮깁니다. 4장 1절에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이 전에 말한 것과 다음 말할 것을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라는 의미는 이전에 말한 것이 진리이니까 이것을 하라 라는 뜻입니다. 이 경우는 더 자세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가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실이라면 다음과 같이 되고 행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가 되어라 는 뜻이다.

본문해석

교회의 하나님(4:1-3)

4:1. 바울은 "주의 죄수"였고(4:1), 그리고 그는 독자들에게 이 기초에 대하여 호소하기 시작했다. 다음에 나오는 바울이 그들에게 태도와 행동으로 헌신할 것을 부탁할 때 그는 자신이 먼저 헌신한 것들을 그들에게 요구했다. 그의 감옥 생활이 그의 헌신을 증명해준다.

아무도 감옥에 가기를 원치 않듯이 바울도 그러했다. 그러나 감옥도 "주님이 계신" 장소가 되었다(4:1).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의 존재는 억울한 감금의 비참한 현실이라도 바꾸지 않았다. 감옥에 있다고 해서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멈추지 않았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주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세상 속에 "새사람이 될 수 있었다.

4:2. 그리스도와 함께 한 인생은 "겸손의 인생"이 되는 것이다(4:2). 겸손은 다른 사람들과 지위와 자리를 자유롭게 나누기 위해 자신의 지위와 자리를 포기하는 특성을 가진다. 빌립보서는 그리스도는 신성한 지위와 자리를 비움으로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빌립보서 2:5-11). 겸손은 궁정적이며 능동적이다. 겸손은 자신의 관심이 아니라 공동의 관심과 유익을 얻으려고 일하는 것이며 다른 사람들과 삶을 나누는 것이다.

예수님은 겸손하셨지만 약하지 않았다. 그분은 강하고, 적극적이셨고 대립적이셨다. 그러나 그분은 한번도 그분의 신분과 이 세상에 선교사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신의 지위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분 스스로 자기 본위가 아닌 스스로를 존중했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살아야 하겠다.

"온유"(4:2)는 교회에서 행하는 삶의 두 번째 특징이다. 온유라는 그리스어는 "순한"으로도 번역된다. 이 단어가 사용된 역사를 보면 이 그리스 단어는 종종 잘 훈련되고 교육받은 순한 동물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다. 거세고 적극적이던 동물이 얌전하고 다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대에는 이 온유와 순함이 약한 사람을 지칭하는데 잘 훈련된 동물 분석한 견지에서 볼 때 잘못된 생각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순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주권아래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이 올바른 예배를 하도록 유대인의 성전 뜰 안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을 내치신 것은 순함에서 나온 행동이었다(요한복음 2:13-16). 그분의 행동은 쫓겨난 사람들과 유대인들을 위한 행동이었다.

또한 교회 성도들은 "인내" 할 줄 알아야 한다(4:2). 그리스어로 이 단어는 "참을성이 많은"으로도 번역된다. 이 단어는 목적을 수반한 인내라는 뜻이다. 그리스도를 따르고 전하는 목적을 위해 제자들은 미움, 폭력, 적대감 같은 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앙갚음하지 않는다. 대신에 그 어려움을 참고, 무례한 사람들에 대해 겸손과 온유를 찾고자 애쓰는 것이다.

교회 연합의 기초(4:3-6)

4:3. 이러한 자질을 높이는 교회가 바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이다(4:3).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에덴동산에 두셨을 때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었다. 인간은 하나님, 서로, 그리고 주위에 있는 다른 창조물과 조화를 이뤘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 부조화와 분리가 결과로 남았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들 자신을 숨겼다. 이런 부조화로 인해 그들의 일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창조사역이 아니라 노동이 되었다. 이런 분리는 가인과 아벨에게도 계속되었고 죄로 인해 만들어진 분리와 부조화의 한 예가 되었다. 우리는 우리가 미완성이며 부조화의 존재로 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4:4-6. 하나님은 연합과 조화를 모든 것을 돌리는데 목적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만이 새로운 삶을 주기 위해 미완성과 소외를 이길 수 있다. 인류는 하나님이 찾는 한 몸, 성령, 소망, 주, 믿음, 침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완전, 연합, 그리고 조화를 찾는다.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다"(4:6). 하나님은 조화를 회복하고 있고 우리가 하늘에 있는 그의 임재 안에 완전히 들어갈 때 회복할 것이다.

하지만 그려는동안 사람들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만드는 조화를 보지 못하므로 교회에 모일 때나 세상으로 나갈 때 동질성으로 세상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 서로, 하나님의 창조물과 함께 하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증거가 된다. 분리된 하나님, 몸, 성령, 소망, 주, 믿음, 침례는 하나님, 몸, 성령, 소망, 주, 믿음, 침례가 모든 교회에 같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

Growing Up in Christ(4:7-16)

4:7-10.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성장하기 위해 하나님의 도움이 있다. 우리는 모두 은혜의 선물을 받았다(4:7). 그리스도의 승천(죽음과 부활후의 영광)과 내림(그분의 이 땅에서 탄생과 삶)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 교회를 훈련할 권위와 능력이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4:11-13. 그리스도는 사도들, 예언자들, 전도자들, 목사들과 교사들 등 여러 방법으로 사람들을 불러 그분을 섬기게 한다. 이러한 것들이 사역 속에, 사역을 위해, "성도를 온전케" 하며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4:13). 모든 사역의 목표는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다"(4:13).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처럼 보여야 하고 그리스도처럼 행동해야 한다.

여기에 언급된 은사들은 다가 아니지만 다른 사역자들을 훈련시킬 목적으로 중요한 기능들을 강조하고 있다. 이 은사들을 생각해 보라.

- "사도들". 사도들의 기능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으로 지금부터 신약시대에 이루어졌다.
- "선지자들". 이들은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교회가 바로 알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었다. 예언자의 성서적 의미는 비록 그 말속에 예측의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도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사람들이다. 오늘날 "예언"이란 단어를 미래를 예측하는 의미로 잘못 사용하는 것이 안타깝다.
- "전도자들". 전도자는 교회 개척을 도와주고 설교를 하기 위해 떠난 선교사들이었다.
- "목사들과 교사들" 이 두 단어들은 교회에서 돌보며 가르치는 면에서 같은 기능을 내포하고 있다.

이런 은사들은 사역자들이 교회 사역을 준비하고 이끌기 위해 주어졌다. 교회가 사역자 개념으로 역할을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다(4:13). 교회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계속 성숙으로 성장해야 한다(4:13).

4:14-16. 교회가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자랄 때, 어린아이들처럼 "간사한 유혹" 빠지지 않는다(4:14). 교회는 거짓 "교훈"을 따르지도 "풍조"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바울은 그리스도안에서 교회의 연합을 강조하기 위해 몸이라는 그림을 계속해서 사용하였다. 교회가 교회 된다는

것은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는" 몸이어야 한다(4:16). 교회는 "상합함으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것"이다(4:16). 이런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 거쳐 주는 사랑이다. 교회와 세상을 향한 사역은 그리스도의 거쳐 주는 사랑으로 일해야 한다. 교회가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안에서 성숙하게 자랄 수 있는 것이다.

교사를 위한 제안들

수업계획 - 다양한 학습활동

학습인도

1. 시작하기 전에 애베소서 1-3장의 개요가 담긴 종이를 아래와 같이 준비하라. 그 개요가 적힌 종이를 학습자들에게 도착하는 데로 나누어 주라.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반응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의도

그럼 인생이 무엇입니까?

애베소서 1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그 구원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애베소서 2:1-16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애베소서 3:14-21

2. 학습자들이 함께 그 개요를 벽에다 순서대로 진열했나요?

질문: 애베소서 전반부를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대답을 기다리세요. 그런 후 개요를 가리키며 애베소서 1-3장은 망원경 관찰이라고 말해주세요. 이 세 장들은 우리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얘기합니다. 나머지 개요의 요점을 정리하면서 조금 전의 학습에서 학습자들이 발견한 답이 무엇인지 물어보세요.

3. 질문: 애베소서 후반부를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대답을 기다리세요. 그런 후 개요를 가리키며 애베소서 1-3장은 현미경 관찰이라고 말해주세요. 이 세 장들은 우리가 어떻게 애베소서 1-3절을 실천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4. 종이 쪽지에다 아래의 말들을 적고 그 말들의 정의를 다른 종이에다 적어서 책상 위에 섞어 놓은 후 단어와 정의가 같은 것을 찾도록 학습자들에게 얘기하세요. 세 번째 단어는 7번을 위해 따로 놔두세요.

성도- 사역을 위해 하나님이 따로 세우신 사람

부르심 -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영접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초청

연합 - 그리스도가 주신 성령, 삶, 믿음, 그리고 교제 안에서 신자들의 하나님

5. 학습 공과서에서 첫째 개요를 다음과 같이 적으세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연합된 삶을 살기를 기대하신다 (4:1-6)." "연합"이라는 말을 첨부하면서 학습자들에게, 연합이 무엇이냐? 고 물어보세요.

6. 학습자들이 애베소서 4:1-6절을 조용히 읽었습니까? 다음 질문에 큰소리로 답하라고 하십시오.

-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모습의 특성들을 바울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 어떤 말이 반복해서 언급되었습니까?(하나됨)

7. 학습자들에게 예베소서 4:7-11절에서 다음의 질문에 답을 찾으라고 하십시오. 깨끗한 종이에 질문을 인쇄하거나 질문들을 큰 소리로 읽고 학습자들의 대답을 요청하십시오. 정확한 답을 써 놓으세요.

- 누가 은사를 받는가?(모든 신자들)
- 신자들이 언제 은사를 받는가?(성령 체험 후)
- 어떤 은사가 가장 중요합니까?(모두 다)
- 어떤 은사가 가장 근본적입니까?(모두 다)
- 누가 어떤 은사를 줘야 할지 정합니까?(성령님)
- 누가 은사를 줍니까?(성령님)
- 신자들이 왜 은사를 받습니까?(그리스도의 몸을 섬기기 위해)

8. 학습공과서에 있는 4:8-9절에 나온 왜 성령은사를 받을 수 있나에 대한 해설을 나누십시오. 4:11절에 나온 교회의 역할들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학습공과서에 나오 설명과 이 교사 지침서에 나온 설명을 참조하여 그 역할들을 설명하십시오.

9. 영적 성장의 중요성을 설명하십시오. 14번째에 설명한 평가표를 몇 장 준비하십시오. 학습자들에게 처음 두 개에 대하여 대답하라고 하십시오. 자신들의 대답을 나누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주십시오. 준비된 예화를 사용하기 위해 학습공과서에 있는 4:12-16절에 나온 영적 성장에 대한 네 가지 척도를 간략하게 요약하십시오.

수업계획 - 강의와 질문들

학습인도

1. 예베소서 1-3장의 개요가 담긴 종이를 아래와 같이 준비하라. 그런 후 개요를 가리키며 예베소서 1-3장은 망원경 관찰이라고 말해주세요. 이 세 장들은 우리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얘기합니다. 개요를 다시 보면서 각 문제의 답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반응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의도

그럼 인생이 무엇입니까?

예베소서 1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그 구원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예베소서 2:1-16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베소서 3:14-21

2. 개요를 가리키며 예베소서 1-3장은 현미경 관찰이라고 말해주세요. 이 세 장들은 우리가 어떻게 예베소서 1-3절을 실천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오늘 공부한 예베소서 4장 전반부 내용인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므로 교회를 세우도록 독자들에게 역설한 것을

설명하시오. "부르심"의 정의를 학습공과서에서 찾아 설명하십시오.

3. 학습공과서에서 첫째 개요를 다음과 같이 적으세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연합된 삶을 살기를 기대하신다 (4:1-6)." 학습자들에게, 연합이 무엇이냐? 고 물어보세요.
4. 학습자들이 예배소서 4:1-6절을 조용히 읽었습니까? 학습자들에게 답을 들으라고 하십시오.(1)"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모습의 특성들을 바울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어떤 말이 반복해서 언급되었습니까?(하나됨) 학습자들에게 다시 대답하도록 하십시오.
5. 학습공과서에 나와있는 연합의 일곱 가지 기본 진리에 대하여 설명하십시오.
6. 교회의 연합에 기여하기 위해 우리에게 영적 은사가 주어진다고 하십시오. 우리는 이러한 은사를 발견하고 사용함으로 좋은 청지기가 될 수 있습니다.
7. 두 번째 개요의 요점인: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그들의 은사를 찾고 사용하기를 기대하신다 (4:7-11)" 학습자들에게 예배소서 4:7-11절에서 다음의 질문에 답을 찾으라고 하십시오. 교사 학습공과서에 있는 성경 주해에서 또 다른 뜻을 찾아 서로 나누십시오.
 - 누가 은사를 받는가?(모든 신자들)
 - 신자들이 언제 은사를 받는가?(성령 체험 후)
 - 어떤 은사가 가장 중요합니까?(모두 다)
 - 어떤 은사가 가장 근본적입니까?(모두 다)
 - 누가 어떤 은사를 쥐야 할지 정합니까?(성령님)
 - 누가 은사를 좁니까?(성령님)
 - 신자들이 왜 은사를 받습니까?(그리스도의 몸을 섬기기 위해)
8. 학습공과서에 있는 4:8-9절에 나온 왜 성령은사를 받을 수 있나에 대한 해설을 나누십시오. 4:11절에 나온 교회의 역할들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학습공과서에 나온 설명과 이 교사 지침서에 나온 설명을 참조하여 그 역할들을 설명하십시오.
9. 세 번째 개요의 요점인: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성숙하게 자라기를 기대하신다(4:12-16). 영적 성장의 중요성을 설명하시오.

적용격려

10. "수업 계획-강의와 질문들"에 14번에 나온 대로 학습자들에게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하게 하십시오. 학습자들에게 읽게 하고 스스로 평가하도록 하십시오. 그들의 대답이 고백이나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시간을 넉넉히 주십시오. 기도로 끝내세요.

제 11 과

크리스챤이 언행일치의 삶을 사는 방법

핵심본문

에베소서 4:17-5:11

배경

에베소서 4:17-5:14

주제

크리스챤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새로운 삶을 모든 행동과 관계 속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탐구 질문

사람들이 당신을 볼 때 무엇을 보고 당신이 크리스챤인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교육 목표

좀 더 믿음이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 참석자들이 적어도 한 가지 할 수 있는 행동을 결심하도록 도와준다.

성경주해

배경 이해

신약 시대는 흥미를 돋우는 환경이었다. 수많은 신들로 인해 상당히 종교적이었다. 1세기 때에 사람들은 신이 있다고 믿었지 없다고 믿지는 않았다. 바울과 그의 선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도시마다 다니며 사람들의 생각과 헌신에 도전을 주었다. 그들은 사람들이 예배하는 보았고 자신들을 예배하고 그리스도를 따를 것을 권했다. 에베소에 눈부신 아테미스 성전은 선교사들 앞에 힘든 산이 있음을 시사했다(참조 행 19:23-41).

선교사들은 또한 어디를 가든지 마귀를 보았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지배했다. 많은 종들이 주인들에 때문에 힘들어했다. 로마 군사들은 항상 있었고, 어떤 사람은 좋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 로마 군사들의 주둔은 당시 로마가 그들의 땅을 점거했고 자유를 제한 것을 상기시킨다. 매일 매일 생활 속에 로마와 그 힘의 변하지 않는 출현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 분과 쓴 원한이 치밀어 올라오게 했다. 선교사들은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가난에 지쳐 있음을 보았다. 간단히 말하면, 바울과 그 선교사들과 지역교회는 우리보다 큰 도전을 가지고 엄청난 세상에 살도록 불려졌다.

교회의 삶이 곧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개념이 당시 사람들에게 존재에 대한 새로운 개념으로 인식됐다. 교회로 알려진 그리스도의 마음은 지금과 똑같이 살아있었다. 바울은 교회에게 언행에 있어 다른 사람과 세상에 대해 그리스도와 같이 하라고 했다. 새로운 방법의 존재, 그리스도안의 존재는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고, 없지고, 해방된 삶을 위해 생명을 주는 존재이다.

지금도 역시 세상은 그리스도의 존재를 우선 교회의 생명과 형상으로 본다. 우리가 언행을 바르게 할 때 그 생명은 살아있다.

본문해석

차이(4:17-24)

바울은 그리스도안에 있는 사람들과 아닌 사람들 사이를 비교했다. 그리스도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을 일컬어 "이방인"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방인"이란 용어는 이 경우에는 영적인 범주를 암시하지 인종이나 민족의 범주를 암시하지는 않는다. 이스라엘 민족과 아닌 민족들 사이에 정치적/국가적으로 차이가 있었을 때, 교회에 속한 사람들과 아닌 사람들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

그리스도의 성도들은 "이방인이 사는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4:17). 바울은 그리스도를 떠난 교회 밖의 사람들의 생활습관을 지적하는 것이었다.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사는 사람들은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산다(4:17). 그리스도에 의해 사는 것은 자기 식대로 자기 문화와 상황에 맞춰서 산다는 것과는 틀리다. 사람들의 뜻, 지식, 사고의 시작과 끝이 그들에게 달려있다면 그 삶은 결국 허망한 것—"총명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으로 소외감을 갖는 결과를 낳게 된다. 더 나아가서 그런 삶은 무지함, 마음이 굳어짐, "감각"을 잊고 "방탕한 자" 그리고 열망으로 특징지어져서 모든 "불순"한 것을 일삼게 된다(4:19). 따라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떠난 인생을 타락한 인생으로 묘사했다.

물론 도덕적이고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교회밖에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기를 택하는 사회는 특별한 방향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역사회에 변화된 덕이 없이는 그 어떤 인간의 힘으로도 도덕의 퇴락을 저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교회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과 함께 거닐며 사역한 것처럼 더 큰 인류 공동체의 덕을 위해 하나님의 힘이 되어야 한다.

교회는 "그리스도로를 배운 것"같이 살아야 한다(4:20). 그리스도가 그의 제자들을 사회의 빛과 소금이라고 불렀던 것을 기억하라. 소금은 방부하는 것이고 맛을 내는 것이며, 정결의 상징이고 치유하는 약품이었다. 교회도 사회의 방부제로서의 역할을 하라고 불렀다. 빛으로 교회는 비추고, 방향도 제시하고 사회에 그리스도로 생명을 구제하는 일을 한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대했는지 알아야 한다. 그런 후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서 똑같이 살아야 한다.

결과적으로, 교회는 옛 사람과 "썩어져 가는 구습"(4:22)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한다(4:24). 현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그림과 같다. 다른 의미로는 옛 사람을 버리고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다. 옛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진 존재이다. 그것이 바로 "이방인"(4:17)의 몸이다. 새사람이 그리스도요 교회이다.

교회의 실재는 개인과 협력이다. 그리스도의 몸은 다른 부분이 없이, 구원으로 그리스도께 오는 개인이 없이, 몸이 될 수가 없고 개인은 교회 없이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없다. 교회는 뿔뿔이 흩어진 개인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모인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에 있는 손, 귀, 발, 눈이 각각 개체(개인)이다. 교회에서 모일 때 몸을 만든 창조자를 예배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 교회가 누구이며, 누구에게 속했으며, 그리고 무엇인가를 보게된다. 교회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것을" 보고 보여주게 되는 것이다(4:24).

바르게 살라(4:25-32; 5:1-5)

의와 거룩은 개념이상이며 당연히 감정은 아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으나 그 감정이 의나 거룩을 만들지는 못한다. 대신, 의와 거룩은 사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거룩하고 의롭게 사는 것을 좋지 않게 볼 수 있다. 의와 거룩은 행동이지 느낌이 아니다. 바울은 교회 생활의 나쁜 것과

좋은 것을 가리기 위해 행동과 태도를 주었다.

진리가 옳다고 하면서도 이웃에 대해 거짓을 행하는 것도 잘못이다. 분냄은 그 자체로는 잘못이 아니다. 그러나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잘못이다. 속에서 끌어 오르는 분냄은 잘못이다. 자기와 다른 사람들의 덕을 행하기 위해 도와주고자 내는 분냄은 정당한 분냄이다. 우리의 분냄이 우리는 물론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있는지 물어봐야 한다. 이런 분냄도 해지기전까지 계속해서 가질 수 있다. 그렇게 하려면 "마귀로 틈타게 하라" 그러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파괴하는 행동을 낳게 된다.

도둑질은 잘못이나 정직한 노동은 아이다(4:28). 도둑질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음악가계에서 돈도 지부하지 않고 노래 CD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도둑질의 한 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라고 나에게 주신 자원과 능력을 그대로 갖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의 그들에게 주라고 나에게 주신 것을 빼앗고 있지는 않나요? 생략하는 것도 범하는 것같이 죄가 될 수 있나요?

"더러운 말"(4:29)은 잘못이나 교회를 세우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말은 맞습니다. 다른 사람을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말, 비탄케 하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도둑질하는 것 같다. 그런 혐담은 사람의 성격을 망가뜨리고 그 사람이 지금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없애버리게 한다. 아마도 이것이 교회 안에서 가장 쉽게 지는 그런 죄면서도 죄 중에서도 가장 큰 죄가 아닌가 한다.

성령을 비탄케 하는 것(4:30)은 잘못된 것이다. 비탄은 슬픔이며 고통스럽다. 우리의 잘못된 행동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원인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비탄하게 만드는 것은 말과 행동에 다 연관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의 하는 말이 개인이든 단체든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표현이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누구고 무엇을 하는지 드러내게 한다.

그럼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훼방", "악의"(4:31), 또는 "누추함, 어리석은 말과 희통의 말"(5:4)들이 우리의 자세와 행동에 안주해 있지는 않는가?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버려야"합니다(4:31). 마치 누가 더럽고, 누추한 입었던 옷, 아직 빨려고 하지도 않은 옷을 따로 치우듯이 바울이 나열한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우리의 몸에서 떼어내야 한다. 세상과 같이 불의한 옷을 입은 교회는 하나님의 사역이 없는 교회로 나타난다. 바울은 교회가 속은 더럽고 걸은 하얀 그런 독선적인 교회가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의 덕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완전하지도 못하고, 실수투성이일 때에도 부르심에 합당한 부름을 입은 자로 그리스도를 쫓아야 한다. "음행 하는 자 또는 더러운 자, 탐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5:5). 그리스도의 몸에 있는 사람이 규정을 만들지 못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는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으로 만들어진 삶이다. "비탄해 하는 것"은 음행 하는 자난 더러운 자의 삶의 가리키는 것일 수 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삶을 우상화하여 결국 자신이 우상을 섬기는 "우상숭배자"가 되는 것이다(5:5). "왕국"의 뜻은 다스린다는 뜻이다. 바울은 법의 근원과 본질 자세하게 만든다.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법이다.

우리가 정말 나쁘더라도, 지금도 나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주셨고 우리를 용서하신다. 그보다 더 하나님의 엄청난 용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인정 많음" 사람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특성과 행동이기 때문이다. "친절"함과 "인정 많음"은 다른 사람에게 잘해준다는 것이다. 우리가 용서할 때, 친절할 때, 그리고 인정 많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날 때 가졌던 그 사랑이 그분을 닮아 가는 것에 포함된다. 그리스도의 인생은 "향기로운 재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십자가에서 최고의 사랑을 보았다.

사람들이 친절하지도 인정이 많지도 않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하며 언제 이 사람들이 친절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 할까요? 계속 부정적일 때도 해야합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 일로 부르셨다. 십자가에서 주님의 죽음은 그분의 친구가 되고자 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분의 원수를 위해서였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적 사랑이다. 따라서 사랑은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다. 그런 사랑은 원수든 친구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헌신의 삶이 그런 사랑이다. 다른 사람에게 화가 났을 때에도 그 사람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하는 것이다.

교회가 사랑하기 제일 어려운 곳이다. 왜 우리는 크리스챤으로부터 적대감을 갖게 되는가? 왜 우리가 적대적이 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이 크리스챤의 삶이고 우리의 감정을 그분에게 맞춰야지 우리에게 맞춰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닮아야 한다.

교사를 위한 제안들

수업계획 - 다양한 학습활동

삶과의 연결

1. 다음 문장 "얼마나 많은 거듭난 사람들이 당신에게 저들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지 주의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을 보여줄 준비를 하라. 그 문장을 수업이 시작하기 전까지 가지고 있으라. 그 문장을 학습자들에게 보여주고 질문을 물어보라. 아무나 대답할 수 있도록 하라. 그런 후 다음 질문: 왜 그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라고 물어보라. 반응을 기다리라.

학습인도

2. 학생공파에 있는 한 짧은 목사와 벌목공 지역주민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해 주라. 그리고 바울이 드러내진 죄들이 세상에 있는 크리스챤의 증거들을 파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말했다는 것을 설명하라.

3. 에베소서 4:17-24절을 말한 후 이 구절들 속에서 학습자들에게 "옛 습성대로 사는 삶"(4:24)의 특성을 찾아보게 하고 서로 나누도록 하라. 그 특성들을 나누면서 학습공파와 인도자지침서에 나온 특성들의 정의와 뜻을 알려 주라.

4. 에베소서 4:20-24절을 보면서 학습자들에게 그리스도안에 있는 새 삶의 특성들을 찾아보게 하고 서로 나누도록 한다. 그 특성들을 나누면서 학습공파와 교사지침서에 나온 특성들의 정의와 뜻을 알려 주라.

5. 칠판에 아래에 있는 표를 그리되 맨 윗줄에만 쓰고 나머지는 빈 공간으로 두라. 학습자들에게 에베소서 4:25-5:20절에 나온 크리스챤들이 "행할 것"과 "행하지 않을 것"을 함께 찾아 볼 것이라고 설명한다. 위의 구절에서 먼저 학습자들이 함께 빙칸에 들어갈 적당한 말들을 찾게 한 후 학생공파에 나온 해설을 참조하여 각각의 뜻을 듣도록 하라.

행할 것	행하지 말 것	
정직하게	혀위로	4:25
건설적이게	파괴적으로	4:26-30
친절하게	인색하게	4:31-32
사랑으로	정욕으로	5:1-7
빛으로	무지로	5:8-14
지혜로	어리석게	5:15-20

6. 인색하지 않은 사랑,"을 설명하면서 아카페 사랑의 특성과 본질에 대해서 물어본다. (이기적이 아닌, 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함, 자기 희생, 다른 사람의 행복에 대한 관심, 선택)등의 답을 받는다. 그런 후 필요하면 설명하고 요약하라. 아카페가 감정이 아니고 오히려 감정이 아카페의 결과라는 것을 설명한다. 우리가 아카페적인 사랑을 보일 때 하나님을 닮아 가는 것이다.

7. "어리석음이 아니라 지혜로"를 설명하면서, 학습자들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성령 충만하게) 행동할 수 있는 세 가지 지혜의 특성들을 찾아보게 한다. "성령충만"(5:18)에 대한 설명은 학습공과와 인도자 지침서를 참조하라.

적용격려

8. 위의 6번에 있는 표를 보고 학습자들에게 각 내용에 대한 자신들의 행동에 등급을 정해보라고 하라.
칠판에 아래 내용을 길게 적은 후 학습자들에게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약함에서 강함으로 등급을 정해라 한다.

행동할 마음 업음 - 주저함 - 되는대로 - 연습함 - 행하고 있음
(약) (강)

9. 약 3분 정도 후에, 학습자들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의 장점과 단점을 찾게 한다. 학습자들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자랄 수 있고, 자신들의 약점을 고백한 후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와 함께 수업을 끝낸다.

수업계획 - 강의와 질문들

삶과의 연결

1. 학습자들에게 지난 과에서 크리스챤들이 교회에서 어떤 생활을 해야하는가에 대해 배운 것을 상기시킨다.
이번 주에는 크리스챤들이 어떤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에 배운다고 말하라.

학술인도

2. 에베소서 4:17-24절을 크게 읽는다. 학습공과와 교사지침서에 나온 자료를 사용하여 "옛 성품의 삶"의

특성들을 찾아보고 설명하라. 다음 질문을 한다. "만약에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쓴다고 한다면, 이 서신이 얼만큼 달라졌을 것 같으며 왜 그러할까" 말해보게 한다.

5. 에베소서 4:20-24절을 가리킨다. 학습공과와 교사지침서에 나온 자료를 사용하여 주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의 특성들을 찾아보고 설명한다.

6. 칠판에 아래에 있는 표를 그리되 가로 7칸 세로 3칸 짜리 단을 만든다. 학습자들에게 에베소서 4:25-5:20절에 나온 그리스도인들이 "행할 것"과 "행하지 않을 것"을 함께 찾아 볼 것이라고 설명한다. 가르치면서 표에 답을 쓴다. 위의 "Encourage Application 적용격려" 있는 12번도 함께 하라. 4:25절을 끄게 읽고, 표 안에 "행할 것"과 "행하지 말 것" 밑으로 적당한 말들을 쓰고 학습공과와 교사지침서에 나온 자료들을 사용하여 설명한다. 다른 개요들도 이와 같이 한다.

행할 것	행하지 말 것	
정직하게	허위로	4:25
건설적이게	파괴적으로	4:26-30
친절하게	인색하게	4:31-32
사랑으로	정욕으로	5:1-7
빛으로	무지로	5:8-14
지혜로	어리석게	5:15-20

7. 4:26-30을 크게 읽는다. 학습자들에게 세 가지-분념, 정직한 일, 하는 말들- 행동 영역을 말해준다. "파괴적이지 않고 건설적으로"를 강의할 때, 학습공과에 나온 자료를 사용하여 세 가지 행동 영역들-분념, 정직한 일, 하는 말들- 설명한다. 각각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예를 들어보도록 한다. 이 구절에 관하여 교사지침서에 나온 자료를 사용하여 다른 의미들을 첨가해 본다.
8. 아무나 자원해서 4:31-32절을 크게 읽게 한다. 이 구절들의 뜻과 적용에 대하여 학습공과와 교사지침서에 있는 성경주제에서 개념을 찾아 서로 나누도록 한다.
9. 5:1-7절을 끄게 읽는다. 반을 둘로 나누어서 한 반은 (우리의 행동에 대한 그리스도의 회생) 중요한 실례를 들도록 하고 다른 한 반은 바울이 말한 크리스챤이 해서는 안될 행동들에 대해 들도록 한다. 두 반 모두에게 답을 듣는다. "인색하지 않은 사랑,"을 다루면서 아카페 사랑의 특성과 본질에 대해서 물어본다.
10. 자원자 시켜 5:8-14절을 크게 읽게 하고 학습자들에게 바울이 (빛, 어두움) 그리스도안에 사는 삶과 밖에 사는 삶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개념들을 듣게 한다. 이 구절들의 뜻과 적용에 대하여 학습공과와 인도자지침서에 있는 성경주제에서 개념을 찾아 서로 나누도록 한다.

적용격려

11. 수업 마지막에 위의 6번에 있는 표를 보고 학습자들에게 각 내용에 대한 자신들의 행동에 등급을 정해보라고 하라.

행동할 마음 업음 - 주저함 - 되는대로 - 연습함 - 행하고 있음

(약)

(강)

제 12 과 크리스챤의 가정생활

핵심본문

에베소서 5:21-6:4

배경

에베소서 5:15-6:9

주제

가정에서 크리스챤의 삶을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주권아래 서로 복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탐구 질문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가정에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교육 목표

본과를 통해 그리스도의 주권아래 사는 것이 당신의 가정에 무슨 관계가 있는 알아봅니다.

성경주해

배경 이해

바울은 핵심 본문에서 가정을 다뤘다. 그가 다룬 가정은 바울이 있던 당시의 로마 가정 구조로 된 가정이었다.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가정에 빗대어 다뤘다. 에베소서의 실천 적용(4-6장)부분에서 바울은 동등함과 함께 교회의 연합에 초점을 맞췄다. 교회는 가정과 개개인을 다 포함하며 따라서 교회는 가정의 연장이다.

신약시대 때는 국가의 최소 단위가 가정이었다. 가정의 구조와 기능은 그 당시 정치 이론가들의 주목거리였다. 이론가들이 관심 가졌던 가정의 권위구조는 남편, 아버지, 그리고 주인이 가정에서 권위를 갖는 구조였다. 만약 그 당시 국가와 사회가 강하게 남았더라면, 상하 관계의 권위 구조는 계속 유지되었을 것이다. 남자에게 권위가 있었고, 나머지 여자, 아이들, 종들은 그 권위에 복종했어야만 했다.

신약시대에서 종들도 집안의 권위로 다스렸다. 비록 로마제국 내에 종들이 전체 1/3을 차지했어도 저소득층 가구에는 종들이 없었다. 비록 종들이 가정구조에서 하급 계층에 속했지만 그들은 그 가정의 연장선의 한 부분이었다.

그리스와 로마시대의 구조는 가장제도(남자가 다스리는)였는데 아마도 유대 시대 때보다 더 심했을 것이다. 모든 일을 아버지들/남편들/주인들이 다루었다. 당시는 그리스가정보다 로마가정의 아버지의 권위가 더 강력했다. 이러한 문화개념이 여자들이 위상을 세우는 유대교, 기독교 또는 다른 신을 숭배하는 일을 집안 사람이 따르면서 결국 위기를 맞게된다. 이 사람은 그런 강한 남편과 아버지 그리고 강한 사회를 지극히 싫어했었을 것이다.

본문해석

피차복종(5:21)

영어에서 문장이 움직이려면 동사가 필요하다. "그는 공"이라는 동사가 없는 단어들이다. 이 단어들도 문장의 한 부분이지만, 문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다. 이 단어에 여러 개의 동사를 집어넣을 수 있다. 동사가 들어가야만 그 문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다. "때리다"라는 동사를 집어넣으면 그 문장이 "그는 볼을 때린다"라는 문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

흥미롭게도, 21절에 그리스어로 동사가 아니라 분사(participle)가 있다. 이 분사는 18절에 "성령충만 하라(5:18)"로 시작하는 명령형에서부터 다섯 번째 분사이다. 모든 분사들을 다 "성령충만 하라"(5:18)에 연결하면 성령이 주체가 되는 것이다. "피차 복종하라"(5:21)도 마찬가지다.

에베소서 5:21절은 오늘 본문의 핵심의 중심 구절이다. 사실, 22절은 21절의 분사에서 끌어내는 것이 옳다. 22절에는 아무 동사나 분사도 없다. 따라서 22절의 복종은 21절의 피차 복종하라는 것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바울은 모든 일에 피차 복종하라고 주장했고 당시의 가정구조 관계에서 어떻게 이를 수 있는지 이성적인 이유와 설명을 하였다. 가정에서의 역할, 서로를 섬기는 삶을 주기 위해 모든 관계에서 서로 상호 복종하는 것은 교회에서 실천하는 것이다.

복종은 굴종의 뜻이 아니다. 대신, 사람이 복종하는 것은 모든 관계를 떠나 서로에게 봉사할 것을 의식적으로 작정하는 것이다. 그런 봉사의 동기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이다(5:21). 교회의 머리로서 그리스도의 지배는 크리스챤 삶이 그분에게 경외로운 삶이 되는 것을 의미했다.

지루하게 동사니 분사니 했던 것은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 도와주려 했던 것이다. 교회 안의 삶이 성령의 삶이다. 교회 안의 삶이 그리스도의 주권아래 있다.

그리스도안에 있는 우리의 삶은 남위에 혹은 아래에 있는 우리의 권리에 관한 것이 아니고 섬김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피차 복종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지 못하면 귀중한 진리를 놓치게 된다. 섬김의 개념은 사방에 펼쳐있다. 피차 복종은 가정생활 구조를 통하여 발생하며, 동등한 복종을 의미한다.

아내가 남편에게(5:22-24)

바울시대 사회는 가장제도며, 남자위주였고, 구조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가정의 안과 밖을 다스렸다. 많은 경우에 종들은 가정 구조 속에 있었다. 가정에서의 관계를 다루면서, 바울은 비록 구조가 매우 중요했었지만 당시의 사회 구조를 다루려 했던 것이 아니었다. 만약에 바울이 1세기 때 이러한 해석을 가지고 주장했더라면 오늘날의 노예제도 구조를 주장했었을 것이다. 바울이 생각하는 사람의 태고난 가치와 질을 알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 3:28절을 바울 시대에 존재했던 사회 구조로 아닌 모습으로 들여다보아야 할 것이다.

바울이 본 것은 구조는 존재했었다. 교회가 그런 구조에서 어떻게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리스도안에서 그들이 가졌던 삶은 당시 독재적인 구조처럼 남편/아버지/주인/에 의하여 온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어떻게 해야 교회의 연합과 평등을 불공평과 남용이 존재하는 곳으로 영역을 넓힐 수 있을까? 이 말은 사회구조가 상호복종의 관계보다 2차적이며 그리고 변화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서로 섬김은 구조를 외관상으로 침식시켰다는 것이다.

아내는 교회에서 누구보다 더 주님께 복종할 것을 배웠다. 주님이 남편보다 더 우선이다. 그렇다면 아내는 스스로 아내의 머리라고 생각했던 남편에 관하여 어떻게 아내가 머리됨을 행사합니까? 남편이 주님이 될 수는 없었더라도 아내는 주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도 복종을 실천했을 것이다.

다시 한번 더 복종은 비굴이 아니었고 대신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남편을 섬기는 섬김이었다. 교회에서 아내가 배웠듯이 남편에게 스스로 섬기는 실천을 넓혀야만 한다. 아내가 복종하려는 결단은 아내가 스스로 한 결단이었다. 바울은 절대로 강압적으로 주장하지 않았다.

남편이 아내에게(5:25-33)

바울에게 직면한 더 어려웠던 것은 아내에게 복종할 것을 남편에게 가르치는 것이었다. 사실, 바울은 비록 21절에 그 의미가 암시되었지만 복종에 관하여 이야기하지 않았다. 바울은 아내가 남편에게 하듯이 남편도 아내에게 스스로 복종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남편에게 호소하면서, 바울은 그리스도가 아내를 위하여 죽은 것 같이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관계를 기초하여 호소하였다.

첫째, 당시 가정을 다스리는 가장인 남편은 교회의 머리되시는 그리스도가 어떤 관계였는지 알아야 한다. 고대의 몸에 대한 개념은 머리가 생명을 나머지 몸에 발하는 곳이라고 보았다. 어쨌든, 사람이 손가락이나 팔이 없어도, 사람의 몸은 죽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 사람의 목이 없다면, 그 몸은 그 즉시 죽었다. 따라서 교회는 생명과 방향이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교회에 생명과 방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가 한 일이 무엇인가? 그분은 교회를 위해 자기를 주실 만큼 사랑하셨다(5:25).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고 죽으셨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티나 주름잡힌 것"(5:27)이 없는 엄청난 의미와 잠재력을 이룰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그분의 희생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실례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남편은 어떻게 처신하고 어떤 태도로 그의 아내를 해야 할지, 아내를 위해 자신을 포기해야 할지를 배운다.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영광을 위해 자신을 내어 주었듯이 아내의 "영광"(5:27)과 행복을 위해 살아야 한다.

둘째, 남편은 자신과 아내가 하나가 되는 것을 보아야 한다. 마치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이며 또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듯이 남편과 아내가 하나이어야 한다. 바울은 구약(창세기 2:24)을 인용하면서 그의 주장을 내세웠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므로" 더 이상 그들은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5:31). 따라서, 여자는 남편의 "몸"이다(5:29). 그리스도가 교회를 양육하듯이, 남편도 그의 아내를 "양육하여 보호"해야 한다(5:29). 그분은 "자신의 몸"처럼 교회를 보호했다. 때문에 남자와 여자는 한 몸이다. 양육하고 보호한다는 것은 남편의 이기적인 관심으로 표현할 것이 아니다. 단지 그것들은 교회의 기쁨 때문에 주어진 생명인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묘사한 것이다. 본문에서 바울이 남편과 아버지에게 허락한 단 한가지 권위는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종들에게 복종하는 권위다.

자녀들이 부모에게(6:1-4)

이 부분을 읽을 때는 우리의 생각이 급히 바울의 논지의 대상인 아이들이 되는 것 같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가 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바울의 교훈은 가정은 그리스도가 주님이었다고 생각했다. 부모는 자녀들 앞에서나 자녀들을 위하여 행동하며 진실해야 한다. 그 어떤 부모도 자녀를 학대할 권리가 없다. 자녀는 소중한 인격이기에 인격으로 대해야 한다.

다 큰 자녀들의 부모는 다른 부모들이 느꼈던 것을 느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어떻게 그들이 자기 스스로를 돌볼까? 어디에서 살까? 어떻게 생계를 꾸려갈까? 요즘에 나이 먹은 부모들은 자신들이 외롭고, 특별히 힘도 없고 대책도 없을 때에도 스스로 돌봐야 한다.

다 큰 자녀들에게 적용하면서, 기독교 가정이 바울의 생각 속에 있었다. 예수님께서 절대로 가정을 둘로 나누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마태복음 10:21).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하소서라고 했다(눅 9:59). 부모의 요청이 그리스도의 요청보다 우선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나두라고 했으며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로 하셨다(눅 9:60).

주님의 뜻과 상반되지 않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공경"(6:2)은 사회를 위해 건강에 좋다. "땅에서 장수"하는 삶에 관한 이 "약속 있는 첫 계명"(6:2)은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존재를 가리켰다. 물론, 깨진 가정은 숫자에 상관없이 깨진 사회이다.

당시의 구조 속에서 자녀들의 가장 절대적인 가장의 자리로부터 아버지들은 자기 멋대로 권위를 사용했다. 자녀들에게 영구적인 분념과 비통을 안겨줄 치사한 방법으로 아이들을 노엽게 했다(6:4). "복종"(5:21)과 함께 "훈계"(6:4)는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야 한다. 주님은 스스로 자신의 훈계의 범위를 넓힌다.

교사를 위한 제안들

수업계획 - 다양한 학습활동

삶과의 연결

1. 수업시간에 신문이나 잡지들을 가져온다. 칠판에 "미국 가정에 관한 기사를 찾아라. 기사의 내용을 요약할 준비를 하라."라는 말을 쓴다. 학습자들이 들어오면은 신문이나 잡지를 건네주고 칠판에 써 있는 데로 하라고 한다. 수업을 시작할 때쯤 되면, 학습자들을 불러 간단하게 찾은 것을 나누라고 한다. 더 많은 문제와 해답이 기사에 있었는지 물어본다.
2. 에베소서 4장에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도전했다는 것을 지적한다. 지난 주, 우리는 교회 생활과 개인 관계의 가치 있는 삶에 관하여 공부했다. 이번 주에는, 우리 가정에 만연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긍정적인 해답에 관해 초점을 두고자 한다. 우리는 가정생활에서 어떻게 가치 있게 사는지에 대해 공부할 것이다. 학습공과에 준비된 개론과 예화들을 참조한다.

학습인도

3. 아무에게 에베소서 5:2절과 5:21절을 읽게 한다. 학습자들에게 이 구절들이 어떤 가족 관계(상호복종, 서로 사랑)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냐고 묻는다. 그들이 발견한 것들을 나누도록 한다.
4. 종이상자나 구두상자를 수업시간에 가져온다. 상자를 학습자들에게 보여준다. 사람들에게 돌려서 상자의 안과 밖을 보게 한다. 한 가정 상담가가 결혼은 좋은 것들이 가득한 아름다운 상자가 아니라 당신이

꺼내기 전에 여러 가지를 집어 넣어야 할 빈 상자와 같다고 시사한 내용을 담은 학습공과의 "아내들과 남편들(5:22-33)" 아래 있는 생각을 가리킨다. 종이상자를 학습자들 앞에 보인다. 다른 조그만 상자들에 결혼을 이루는데 필요한 종류들(복종, 사랑, 주는 것, 한 몸 이룸, 존경)을 붙인다. 수업 전에 학습자들에게 한 개씩 나누어준다. 당신이 위의 구절들을 다룰 준비가 되면, 각각의 학습자들에게 가지고 있는 종류를 부르라고 요청한다. 당신이 5:22-33의 공부를 인도할 때 학습자들에게 결혼을 이루는 종류를 가지고 오라고 한다. 결혼에 필요한 종류에 대해 완전히 안에 넣는다.

학습자에게 5:21-33절을 큰 소리로 읽게 한다. 학습자들에게 크리스챤 아내와 남편에게 주는 교훈을 들으라고 말한다. 학습공과에 각 주제에 있는 자료를 요약하든지 아니면 참석자들로 검토하게 한 후 보고하라고 한다. 이 본문의 역사적 배경의 의미와 내용에 관하여 교사 학습서에서 뜻을 찾아 첨가한다. "크리스챤 남편"에 대해 말하면서, 지난주에 배운 아가페 사랑을 인용한다.

5. 다른 종이에다 각각의 단어들을 쓰고 칠판 위에 섞어 놓으라고 한다.:스스로 선택한 복종에서 스스로 주는 사랑으로. 크리스챤의 결혼에 대한 독특한 특성을 이 구절에 요약할 수 있다. 학습자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단어들을 복귀시켜 놓으라고 한다.
6. 에베소서 6:1-4절에서 바울이 자녀들과 부모들을 위해 준 교훈들을 가리킨다. 자녀들부터 시작했다. 6:1-4절을 크게 읽은 후, 학습자들에게 골로새서 3:20절, 로마서 1:29-31절, 디모데후서 3:2; 출애굽기 20:12절을 읽게 한다. 위의 구절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학습자들에게 나누도록 한다. 학습공과와 교사 지침서에 있는 성경 주제를 참조하여 에베소서 6:1-4에 나온 내용을 요약한다.

적용격려

7. 돌아오는 주제 학습자들의 가정생활을 개발할 수 있는 두 가지 자세한 행동들을 찾게 한다. 다음 질문들을 제의하면서 생각하는데 도움이 되게 한다.

- 당신의 가정을 위해 무엇을 보여줄 수 있나요?
 - 자의로 주는 사랑?
 - 존경?
 - 상호 복종?
-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무엇을 제안할 수 있습니까?
 - 적극적인 훈계?
 - 인도?
 - 책망과 징계?

생각하고 기도할 시간을 준다. 학습자들이 자신들의 가정과 함께 두 가지 자세한 실행을 나누도록 격려하고 필요하면 용서한다. 그리고 이 적용들에 관해 가족들과 함께 기도한다.

수업계획 - 강의와 질문들

삶과의 연결

- 수업시간에 신문이나 잡지들을 가져온다. 가족들에 관해 당신이 찾은 얘기들을 간단하게 요약하여 보여준다. 질문: 당신이 신문, 잡지를 읽거나, 또는 저녁 뉴스를 시청할 때, 가정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내용과 가정문제 중 어느 것을 더 듣습니까?
- 에베소서 4장에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도전했다는 것을 지적한다. 지난 주, 우리는 교회 생활과 개인 관계의 가치 있는 삶에 관하여 공부했다. 이번 주에는, 우리 가정에 만연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긍정적인 해답에 관해 초점을 두고자 한다. 우리는 가정생활에서 어떻게 가치 있게 사는지에 대해 공부할 것이다.

학습인도

- 아무에게 에베소서 5:2절과 5:21절을 읽게 한다. 학습자들에게 이 구절들이 어떤 가족 관계(상호복종, 서로 사랑)에 대하여 말하는 것인지를 찾도록 격려한다.
- 교사 지침서에 있는 "배경 이해"안의 자료를 요약하면서 수업 내용을 정한다.
- 결혼을 이루는데 필요한 종류들(복종, 사랑, 주는 것, 한 몸 이룸, 존경)을 칠판에 쓴다. 어떤거든 상자에서 나오기 전에 이것들을 "빈 상자"에 들어간다는 것을 설명한다. 학습공과에 나온 5:22-33절의 자료를 가지고 각 종류들을 가르친다.
- 크리스챤의 결혼에 대한 독특한 특성을 이 구절에 요약할 수 있다. 칠판 위에 다음 문구: 스스로 선택한 복종에서 스스로 주는 사랑으로를 쓴다. 학습자들에게 큰 소리로 그 문구를 다 함께 읽도록 한다.
- 학습자들이 자녀들과 부모들을 위해 준 교훈들을 들을 수 있도록 아무에게 에베소서 6:1-4절을 큰 소리로 읽도록 한다. 6:1-4절을 크게 읽은 후, 학습자들에게 골로새서 3:20절, 로마서 1:29-31절, 디모데후서 3:2; 출애굽기 20:12; 신명기 6:5-7을 읽게 한다. 위의 구절들이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언급한다. 학습공과와 교사 지침서에 있는 성경 주제를 참조하여 에베소서 6:1-4에 나온 내용을 요약한다.

적용격려

- 본문이 당신의 가정 상황에 얼마나 적용되고 있는지 설명한다. 그런 후 가정의 어떤 일이건 자진해서 나누고자 하는 사람에게 요청한다. 각 개인이 그들의 가정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한 후 마친다.

제 13 과

어려울 때 크리스챤이 되는 법

핵심본문

에베소서 6:10-20

배경

에베소서 6:10-24

주제

크리스챤이 어려울 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방책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탐구 질문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 어려울 때 크리스챤의 믿음을 지키려고 이변 주에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교육 목표

신실한 크리스챤으로 살아가기 위해 영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것을 결정하도록 도와준다.

성경주해

배경 이해

당시는 군사들이 로마에 주둔해 있었다. 신약시대 때 많은 사람들에게 군인은 일상적이었다. 간혹 군인들이 사람들을 이용했다. 누가복음 3:14절은 어떤 군인들이 아마도 돈을 강제로 탈취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힘을 폭력과 함께 시민을 위협하는데 남용했던 얘기를 언급한다.

어떤 군인들은 자신들의 힘을 계획대로 다른 사람의 평안과 안전을 위해 사용했다. 100명의 군인들을 인솔하는 백부장들이 신약에 등장한다. 한 백부장은 자기 종의 병을 고치려고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았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 이 사람의 믿음에 예수님은 감동하였다(마태복음 8:5-13). 한 백부장은 예수님의 심자가에 못 박히는 모습의 증언자요 예수님의 아들임을 선포할 때 주위에 있어서 증거했던 사람이다(막 15:39). 백부장 고넬료는 이방인중에 첫 번째로 거듭난 사람이었다(행 10). 또한, 율리오란 백부장도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지킬 때 바울을 친절하게 대했다(행 27:1-3).

에베소서는 바울이 옥에 있을 때 쓴 후 잘 알려진 옥중서신 중의 하나인 것을 기억하라.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 로마 군사들에 의해 쇠사슬로 묶였었다. 따라서 바울이 감옥에서 끝날 때까지 이 서신을 쓸 때, 크리스챤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무기들을 분석하는데 군인 갑옷이 도움이 되었다.

바울은 많은 사람에게 부정적인 모습인 로마 군인의 갑옷을 크리스챤 전쟁의 긍정적인 현상으로 바꾸었다. 한편으로는, 로마나 모든 인류의 힘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다. 다른 한 편으로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정복한 것이다.

본문해석

힘의 원천(6:10)

"주안에서"(6:10)는 "그리스도 안에서"와 똑같은 뜻이 있다. 교회는 주안에 있는데 그것은 교회의 모든 성도가 주안에 있다는 것이다. 바울은 확실하게 교회가 살아있는 존재, 활동적인 몸,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뜻으로 말했다. 바울은 교회가 사는 것은 "그분의 힘"으로부터 온다고 했다(6:10). 우리는 그러한 힘을 만들어낼 수 없다. 우리는 그 분 안에 살고, 그의 힘으로 전재에 나간다.

분투(6:11-12)

바울이 갑옷을 설명하기 전에, 크리스챤이 직면한 전쟁에 맞추었다. "마귀의 궤계"(6:11)는 마귀의 일과 방법을 일컫는다. 우리들을 대적하는 마귀 세력인 적은 우리를 넘어뜨릴 많은 방법을 갖고 있다.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의 일은 많은 경우에 매우 구체적이다. 지금 현재 학교에 있는 젊은 학생들을 생각한다. 나쁜 종류의 문들이 그들에게 열려있다. 동료와의 경쟁은 지독하다. 이기적인 선전, 물질주의, 개인적인 부도덕, 잘못된 혼신 등을 빈번히 행해진다.

"마귀의 궤계"를 방어하기 위해서나 처부수기 위해서 가장 최선의 접근은 우리가 누구이며 누구에게 속했는가를 정확히 아는 것이다. 하나님의 갑옷을 입는다는 우리에게 정체성을 주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에게 속해있다. 하나님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견지가 우리 것이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과 일 그리고 우리의 행동과 목표를 만든다.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 아래 있는 많은 군사들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므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를 "대적"(6:11)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바울은 승리의 전쟁으로서 마귀와의 전쟁을 보았다. 우리는 바울이 어떻게 로마 군사들이 보고 있는데 감옥에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는지 의아하게 생각 할 것이다. 당시 군사들 뒤에는 로마제국의 힘이 있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진리를 보는 시각보다 더 분명히 진리를 보았다. 로마의 힘은 약한 힘이었다. 그런 군사들은 하나님의 보병하고도 상대가 안 된다.

바울은 현실적이었다. 그는 마귀를 쉽게 생각하지 않았다. 마귀는 1차원보다 월등하다. "정사"와 "권세자", "어둠의 주관자," 그리고 "하늘의 있는 악한 영들,"은 마귀의 통합된 본질을 설명한다.

하나님의 갑옷(6:13-17)

어떻게 우리가 그런 힘과 대적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전신갑주"(6:13)를 입으면 된다. 마귀는 우리에게는 크지만, 하나님의 갑옷과 함께 하면 맞설 수 있다. 마지막 날에, 우리는 마귀에게 패배하지 않을 것이다.

십자가를 생각해 보라. 마귀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겼다고 생각했었지만, 마귀를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멀망당했다. 곁은 거짓이다. 마귀는 가끔 전쟁 첫 부분에서는 이기는 것처럼 나타난다. 그러나, 하나님의

승리는 언제나 우리가 보는 것과는 다르다. 우리가 십자가에 오라서 예수님을 쳐다보았다면, 당시에 하나님의 승리는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비록 우리가 마귀의 손에 고통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힘이 마귀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 그의 고초, 그리고 승리를 알고 있다.

로마 군인의 갑옷에 여러 가지 부분들인-허리띠, 흉배, 신발, 방패, 투구, 그리고 검-을 그릴 수 있다(6:14-17). 각각의 물건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 갑옷은 여기서 "마귀의 궤계를 능히 대적하고"(6:11), 그리고 "악한 날에 설 수 있도록"(6:13)하기 위하여 방어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설명한다. "악한 날"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강한 도전을 받을 날 즉, 바울 생각에 마귀가 권세를 날 일 것이다. 올바른 방어용 무기를 갖는 것은 땅을 지키기 위함이지 주기 위함이 아니었다. 어찌됐든 하나님의 힘은 필요했다.

교회의 군사인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6:14)를 착용해야 한다. 허리띠는, 비록 갑옷의 일부는 아니더라도,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처음으로 하는 일이다. 허리띠는 갑옷을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진리"는 완전한 자격에 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가리키는 말이다. 아마도 그리스도의 군사는 복음이 생산하는 성실을 입는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이고 믿을 만 하다.

"흉배(6:14)"는 군사의 장기들을 보호했고, 거의 몸 전체를 가리운다. 우리는 의를 만들 수 없고, 의는 하나님의 것이다. 바울은 여기서 언급한 의는 분명히 마귀의 불의에 대립하는 것을 뜻했을 것이다. 의로 존재하고 행하면 그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의만 선포해서는 안되며, 그 의의 입어야 한다.

로마 군사의 "신발"(6:15)은 두꺼운 밀창과 함께 반쪽 짜리 부츠였다. 신발은 "평안의 복음을 선포"(6:15)할 그리스도의 준비를 의미한다. 군사가 확실히 서 있을 수 있다. 신발은 복음에 견고히 서 있는 것이며 평화의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게 하는 무기이다. 마귀에 말에 반대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인 평화의 말씀인 것이다. 마귀의 말은 이간, 분리와 적대감에 대한 말이다. 그리스도의 군사는 평화의 복음에 굳건히 서 있다.

군사들은 적들이 쓰는 "불화살"(6:16)에 약하다. 큰 방패는 길고 몸 전체를 가릴 만큼 넓다. 우리는 언제나 전쟁에서 이긴다고 볼 수는 없다. "믿음"은 우리에게 의심과 우리의 연약함과 약점을 경험할 때 우리로 굳건히 서 있을 수 있게 힘을 준다.

그리스도의 군사는 "구원의 투구"(6:17)를 써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안다. 그가 우리를 죄에 구원하시고 죽음이 이기지 못하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 구원은 한번으로 끝나고 계속 이어지는 것이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갑옷을 입는 것처럼,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한다. 마귀는 절대로 우리로부터 구원을 빼앗아 갈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6:17)은 마지막 남은 무기이다. 검은 성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령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다. 말씀은 성령님이 가르치시고 주신 하나님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다.(요 1:1). 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다(마 1:23).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런 계시를 내 마음, 내 생각에 직접적으로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통하여 가져온다. 마귀도 자신을 계시하나 우리는 더 큰 계시가 있다.

무기는 사람들을 쳐부수는데 사용하는 것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6:12)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그러나 마귀에 대해서다. 사람들은 마귀의 도구이나 하나님은 누구든 마귀의 군사에 가담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교회는 마귀의 태풍에서 평화의 항구로

입향하게 하는 사람들의 등대불이다.

군사는 용사이다. 크리스챤 군사의 갑옷은 용사의 갑옷과 같으나 크리스챤의 갑옷은 구속사적인 감화가 포함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어떤 군사도 폭력이나 파괴를 위해 사용되어져서는 안 된다. 전쟁은 사람들을 살리는 전쟁이지 그들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크리스챤 갑옷의 힘은 총, 폭탄, 칼, 그리고 다른 세상의 무기들보다 더 강력하다.

교사를 위한 제안들

수업계획 - 다양한 학습활동

삶과의 연결

1. "이김, 지는 것, 아니면 비기는 것" 게임과 함께 수업을 시작한다. 학습자들이 반으로 들어올 때 반을 둘로 나눈다. 두 팀 모두 다른 테를 보게 한다. 각 팀에서 한 명을 뽑아 다음 용어들을 팀의 다른 사람들에게 말로 그려본다.(영적 전쟁, 동맹, 적, 갑옷, 승리). 두 팀 모두가 같은 용어를 가지고 같은 시간에 함께 한다. 신호를 한다. 어떤 팀이건 먼저 용어를 맞추는 팀이 이긴다.

학습인도

2. 학습자들은 동그란 원형으로 옮겨 앉게 한다. 위의 다섯 가지 용어를 공부해 본다. 위의 다섯 가지 용어가 우리가 배울 과의 주제들이라고 설명한다. 학습자들에게 에베소서를 공부로부터 다섯 가지 중점을 요약을 복습하게 한다.
3. 수업 시작 전에 칠판에 다음 문구를 쓰고, 밑줄 친 단어는 공란으로 남겨둔다. 학습자들에게 빈칸을 채우라고 한다. 다음으로 넘어갈 때 부드럽게 하기 위해, 맨 마지막 문제는 교사가 한다.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반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에베소서 1-3)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는 삶 (에베소서 4-6)

교회 안에서 당신의 자리를 찾는 길(4:1-16)

크리스챤이 언행일치의 삶을 사는 길(4:17-5:11)

크리스챤의 가정생활(5:21-6:4)

어려울 때 크리스챤이 되는 법(6:10-24)

4. 학습공과에 있는 자료와 교사지침서에 있는 성경 주해를 가지고 에베소서 6:10절을 설명한다.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이 영적 전쟁 준비를 하도록 믿는자들을 불렀고 그들로 어떻게 전쟁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말해주었다.

5. 학습공과에 나온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났던 적들에 대해 설명한 "영적 전쟁을 위해 힘주시는 분(6:10)"에 있는 개념들을 한 사람에게 간단히 요약하게 한다. 그런 후, 현재 미국 기독교인들은 어떤 적들과 대항하고 있나요? 가능하면 다른 세계에 일어났던 크리스챤 팝박에 대해 좀더 조사해 오라고 학습자에게 부탁한다. 그리고 조사한 내용을 간단하게 나눈다.

6. 질문: 믿는자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믿음으로 적을 상대할 수 있을까? 답을 받고 확인하라. 그리고 바울이 그것에 대해 뭐라 하든지 학습자들에게 성경을 보게 한다. 질문: 에베소서 6:10에 따라, 적을 대적하기 위해 어떤 자원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을 언급한다. 학습공과에 나와 있는 수동태와 예화에 대해 설명한 것을 말한다.
7. 질문: 만약 이것이 전쟁이면, 누가 우리의 적입니까? 답을 받고 학습자들로 6:11-12절을 보게 하면서 성경의 답을 확인한다. 질문: 마귀의 다른 이름들은 무엇입니까? 답을 받는다. 학습공과에 나온 이 구절들에 대한 설명을 한다.
8. 질문: 6:12절에 마귀의 일을 설명하는 다른 단어들이 무엇인가요? 학습공과와 교사 지침서에 있는 성경 주해를 사용하여 설명한다. 우리는 마귀의 초자연적인 영적 힘에 대항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영적 힘으로 덫입어 전쟁을 치르도록 해야한다고 말한다.
9. 갑옷 분석을 사용한 바울의 영감을 말한다(교사 지침서안에 있는 "배경 이해"의 개념 참조). 수업 전에, 한 개에 4명씩 다음 구절들을 주어 미리 읽게 한다--로마서 13:12; 고린도후서 6:7; 고린도후서 10:4; 데살로니가전서 5:8. 각각의 구절을 읽게 부르고 영적 전쟁과 갑옷에 관하여 학습자들을 격려한다.
10. 질문: 에베소서 6:14-17절에 따르면, 적과 싸우기 위해 사용했던 갑옷의 무기들은 무엇이었는가? 칠판에 이 무기들을 적어본다. 빠뜨린 것이 없는지 다시 검토해 본다.
11. 참석한 숫자에 따라 각각의 무기를 여섯 명으로, 두 명씩, 아니면 작은 그룹으로 나눠서 준다. 다음의 과제를 각 개인이나 혹은 그룹에게 준다. (1) 갑옷의 무기들의 뜻에 대하여 학습공과에 설명한 것을 요약한다. (2) 크리스챤이 영적인 승리를 거두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갑옷의 무기를 개발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지 찾아보도록 한다. 각각에 대한 보고를 받는다. 필요하면 교사 지침서에 있는 성경 주해에서 자료를 첨부한다.

수업계획 - 강의와 질문들

삶과의 연결

1. 단어 게임과 함께 수업을 시작한다. 자원자를 세워 학습자들의 반응을 칠판에 적는다. 당신이 단어나 문구를 말하면 학습자들에게 제일 먼저 생각나는 단어를 말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개념을 말한 후 자원자에게 그것을 칠판에 쓰도록 한다: 영적 전쟁. 자원자에게 다른 단어가 나올 때까지 학습자들의 답을 쓰도록 한다: 동맹, 적, 갑옷, 승리. 1분 안에 위의 단어들이 나오지 않을 경우, 자원자에게 그것들을 항목에 포함시킨다.

학습인도

2. 위의 다섯 가지 용어를 말한다. 이 다섯 가지 용어가 본파의 주제에 대한 개념들을 줄 것이라고 말한다. 학습자들에게 에베소서 공부로부터 다섯 가지 중점 요약을 복습하게 한다.
3. 수업 전에 칠판에 다음 문구를 쓴다. 학습자들과 관찰해 본다.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반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에베소서 1-3)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는 삶 (에베소서 4-6)

교회 안에서 당신의 자리를 찾는 길(4:1-16)

크리스챤이 언행일치의 삶을 사는 길(4:17-5:11)

크리스챤의 가정생활(5:21-6:4)

어려울 때 크리스챤이 되는 법(6: 10-24)

4. 학습공과에 있는 자료와 교사지침서에 있는 성경 주해를 가지고 에베소서 6:10절을 설명한다.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이 영적 전쟁 준비를 하도록 믿는자들을 불렀고 그들로 어떻게 전쟁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말해주었다.
5. 학습공과에 나온 "영적 전쟁을 위해 힘주시는 분(6:10)"에 있는 개념들을 사용하여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났던 적들에 대해 설명한다. 질문: 현재 당신은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적들과 대항하고 있나요? 대답을 기다린다.
6. 질문: 에베소서 6:10에 따라, 적을 대적하기 위해 어떤 자원이 필요한가? 하나님이 주시는 자원을 강조한다. 학습공과에 나와 있는 수동태와 예화에 대해 설명을 말한다.
7. 질문: 만약 이것이 전쟁이면, 누가 우리의 적입니까? 한 사람에게 6:11-12절을 크게 읽게 한다. 학습공과에 있는 자료들과 교사 지침서에 있는 마귀에 대한 자료를 사용한다.
8. 학습공과와 교사 지침서에 있는 성경 주해를 사용하여 6:12절에 있는 마귀의 또 다른 묘사에 대해 설명한다. 우리는 마귀의 초자연적인 영적 힘에 대항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영적 힘으로 덫입어 전쟁을 치르도록 해야한다고 말한다.
9. 교사 지침서안에 있는 "배경 이해"의 개념을 사용하여 갑옷 분석을 사용한 바울의 영감을 설명한다.
10. 누구에게 에베소서 6:12-20을 크게 읽도록 한다. 학습자들에게 바울이 언급한 무기들에 대해 들으라고 말한다. 보고를 받고 칠판에 이 무기들을 적어본다. 빠뜨린 것이 없는지 다시 검토해 본다.
11. 학습공과와 교사 지침서에 있는 성경 주해를 사용하여 갑옷의 무기를 설명한다. 무기들에 대해 설명하면서 칠판에 그것들을 적는다. 또한 6:18-20절이 기도에 대한 중요한 구절이라고 특별히 언급한다. 학습자들에게 영적인 승리를 거두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갑옷의 무기를 개발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지 말해본다.

적용격려

12. 갑옷의 무기들을 가르친 후, 학습자들에게 다음 문구를 사용하도록 하여 그들의 갑옷 무기 사용을 평가하도록 한다: 못 찾겠음; 아직도 옷장 안에 있음; 가끔 입는다; 아직도 입고 있음.
13. 참석자들에게 자신들이 사용하는 무기 중에서 그들이 당장 직면한 전쟁에서 꼭 필요한 무기가 있는지 찾으라고 한다. 각 참석자들이 그들의 영적 전쟁을 위해 갑옷 무기를 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로 인도한다.

성인용 연속 성경공부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 인도자 지침서

제 1과에서 6과까지의 성경주해 저자는 **에비 스미쓰(Ebbie Smith)**이다. 그는 텍사스 별레슨에 있는 가든 에이커 침례교회의 목사로써 시무하고 있다. 그는 최근에 남침례신학교(SWBTS)에서 은퇴했다. 그는 이 학교에서 기독교 윤리와 선교학 교수로 있었다.

리즈 레풀린(Liz Laughlin)은 1-6 과의 수업 제안들의 저자이다. 그녀는 센 안젤로 제일 침례교회의 피아노 반주자이자 미혼자 고문이다.

제 7-13과의 성경주해 저자는 **죠 블레이(Joe Blair)**이다. 그는 휴스턴 침례 대학교 신학부 학장이자 기독교 철학과 학과장이다.

데비 키솔(Debbie Chisolm)은 달拉斯 로알레인 침례교회의 청소년 및 성인 교육 사역자로써 7-9과의 수업 제안들을 썼다.

마이클 가드프레이(Michael Godfrey)는 10-13과의 수업 제안들을 썼다. 그는 텁풀 제일침례교회의 교육 행정 담당 사역자이다.

BAPTISTWAY PRESS®

Dallas, Texas